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에 서 구원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6월 6일 (토) 제 178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바이러스, 실업, 폭동... 미국을 구하소서!

CT, 크리스천 지역사회 리더였던 조지 플로이드 재조명 치유 대안 제시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전히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가운데, 백인 경찰에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혐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삼중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주 방위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위 지역들에 긴급 투입되고, 야간통금까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의

구현 없는 평화 없다(No Justice, No Peace)"라는 피켓을 든 청년 군중들의 함성을 막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백인 경찰의 물리적 강압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휴스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커뮤니티 리더이자 크리스천이었다는 점이다.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9분 간 눌러 숨겨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 말이 현재 미국 흑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호가 돼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시민들이 9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살해 때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고 외쳤지만 또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자 분노는 극도로 치달고 있다. 중국의 '홍콩 인권탄압'을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무색해졌고, 주말 내내 미국 여러 도시는 시위와 약탈과 최루탄과 곤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CNN에 따르면 30일 현재 미네소타를 비롯해 조지아, 오하이오, 콜로라도, 위스콘신, 캔터키, 유타, 텍사스 등 최소 8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에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LA와 시애틀, 마이애미, 애틀랜타, 밀워키 등 여러 도시에 야간통금령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군 투입'을 경고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소요가 이어지고 있는 곳에 '군대의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으며, 주지사가 요청할 경우 "신중한 계획" 하에 군



백인 경찰의 물리적 강압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4시간 내 출동' 또는 '24시간 내 투입'에 대비해 몇몇 부대에 이미 대기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흑인들의 죽음과 시민들의 항의 시위는 몇년째 계속 반복돼왔다. 2012년 플로리다주 샌포드에서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이 트레이본 마틴이라는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듬해 짐머만은 무죄평결을 받았고, 배심원단 6명 중 5명이 백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과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는 백인 경찰 대런 윌슨이 18세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했다. 윌슨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역시 시위가 벌어졌

다. 그 해 내내 백인 경찰의 흑인 살해가 반복되고 시위가 이어졌다.

퍼거슨 사건 당시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지는 흑인은 연평균 96명으로, 매주 2명씩 경찰에 살해당하는 셈이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구호도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흑인 노점상 에릭 가너가 뉴욕에서 경찰 6명에 둘러싸여 목 졸려 숨지기 전에 남긴 말도 똑같았다. 당시에도 시민들은 "내가 숨을 쉴 수 없으면 당신도 쉴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다.

그 후 6년이 지났어도 미국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플로이드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인종차별 역사는 몇 백 년에 걸쳐 이어져왔다면 "미니애폴리스의

폭력사건은 미국 경찰의 인종주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썼다. 플로이드가 숨지게 한 경찰관 데렉 쇼빅은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사법 절차에 대한 흑인들의 불신은 백인 경찰들의 폭력만큼이나 뿌리 깊다.

한편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번 백인 경찰의 물리적 강압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휴스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젊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선하게 만드는 리더이자 "평화의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George Floyd Left a Gospel Legacy in Houston: As a person of peace, "Big Floyd" opened up ministry opportunities in the Third Ward housing projects).

기독교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미니애폴리스로 이사하기 전까지, 46세의 플로이드는 휴스턴에서 제3와드에서 거의 모든 평생을 보냈다. 그의 사역 파트너들은 사실상의 공동체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장로였다고 말한다.

플로이드는 흑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겪는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흑인들을 위한 주택프로젝트(Cuney Homes housing project)를 적극 활용했다. (3면으로 계속)

분별력, 동정심, 믿음으로 간구

CT, 공중보건전문회의 마해결 상황에서 예배 적용 단계별 제안 소개(하)

사역을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

교회를 위해 새로운 교회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다. 이 단계별 계획에는 지역의 감염수준에 따라 횡수를 늘리거나 줄이며 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유행성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회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선교적 부름을 실천하는 것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것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이 계획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각 지역 정부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제한으로 인해 당신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비슷한 수준일 때만 동일한 단계의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

소규모 모임을 통한 선교적 부름 수행

재택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적은 인원의 모임이 가장 먼저 허용된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모임은 우리를 향한 하나

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우리는 이를 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

소규모 모임에서는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상호 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모임을 통해 교회건물에 들어가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예배가 재개되면 모두 함께 참석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박해받았던 크리스천처럼 우리 사역에서 교회 건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단단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 주변의 성도들이 궁극적인 교회사역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견고하며 동시에 유연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구 성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같은 연령대끼리 모임을 함으로써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감염률이 여전히 높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로 보호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이만호 목사



코로나19와 교회 (2) 린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213) 665-0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씀, 성경대독,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191@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남은 자였다.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신 사명 다 이루고 하늘에 이른 자 있었다. 남은 사명 이루라고 그 땅에 남겨진 자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 때, 그곳에, 남겨 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머무르던 자리에서 지체 없이 일어나 떠나라고 하셨다. 앞서가는 언약에 잠시라도 눈을 떼지 말고 따르라고 하셨다. 요단강에 발을 담대히 내디디며 거침없이 건너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남은 자이다. 2020년 불어 닥친 거센 코로나19 폭풍 가운데, 주어진 길 다 달리고 이제는 은혜로우신 주님 품에 안긴 자도 있다. 이 땅에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기에 남겨진 자도 있다.

하나님은 이 때, 이곳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히 떠나라고 하신다. 저기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잘 따르라고 하신다.

우리 남은 자는 그날까지 결코 낙오되지 않는다. 우리 남은 자는 끝 날까지 남은 자로만 살 것이다.

혁신과 변화...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

Churchleaders.com,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의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주는 5가지 영향 소개

COVID-19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염병으로 간주돼 육체적 사망과 재정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없거나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친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를 당면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 일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이 팬데믹이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구하고' 있는 실상이라면 어떨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급진적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소외나 무관심, 그리고 쇠퇴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 이 팬데믹이 수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강권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 목사는 이 팬데믹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다섯 가지 방법을 짚어준다(5 Ways the Pandemic Is Saving the Church).

1. 교회들은 주말에 군중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일주일 내내 '성육신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공예배를 끌어안고 기념하며 그것을 장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교회 생활의 전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건물에 의해 전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교회들은 '건물' 개념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교회가 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섬기고자 노력하

용하는 것 자체도,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약 45,000개의 크리스천 교회들 정도이고,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적은 숫자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존재감을 갖게 됐다.

다시 말해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교회가 마침내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

3. 교회들은 소셜 미디어를 끌어안도록 강요받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팬데믹 전에 온라인상에서 존재감이 없었

게속해서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새로운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눈을 뜨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쇠퇴해가는 교회의 사전철언(死前七言)으로 "우리는/절대로/그런/식으로/해본/적이/없다(We've never done it that way before)"

라는 말이 있다고도 하지 않는가.

다소 아슬아슬한 시기지만 적어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지금까지/해보지/않았던/방식으로/해보야/한다(We must do things like never before)." 교회의 생명이 희미해지기 직전 부르짖는 일곱 단어에서 생명을 향해 가는 일곱 단어로 발돋

갑자기 호텔에서부터 "고맙지만 사양할 게요"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경을 배부하는 일' 자체가 그들의 주된 초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을 것이다. 그 단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경책 배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캐나다에 위치한 국제기드온협회 회장 앨런 앤더슨(Alan Anderson)은 "때로는 수단이 목적 자체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했지요" 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의 교회들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사업들이 선교의 사명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새롭고 자유롭게 하는 빛 가운데서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바라보고 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다섯 가지 변화들이 이처럼 며칠 만에 세계 교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런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역사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결코 이런 팬데믹 때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우리가 알게되니 하나님을 사랑하

'주일 군중중심' 에서 '한주 내내 성육신적' 방식 이동으로 온라인 세계로 던져져 소셜 미디어 끌어안도록 강요받아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 이 팬데믹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계도화 하고 거룩하게 웅기종기 모여 있던 우리들을 우리가 사는 동네와 거리로 내몰았다.

2. 교회들은 온라인 세계로 내 던져졌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미 온라인을 이용한 콘텐츠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온라인'은 그저 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그 정도는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하거나, 심지어 페이스북(Facebook)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들 중 15%만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배우는 과정 중에 있듯이 소셜 미디어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통의 네트워크'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관계'를 맺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또는 '감동'한다.

이 팬데믹은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교회들이 배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

4. 교회들은 혁신과 변화로 내몰렸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또한 '변화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당신이 항상 고수해왔던 방식을 멈출 것을 강요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하게 해주는 것이다.

5. 교회들은 사명의 자리로 되 돌아왔다.

당신의 모든 방법들과 관행들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가공되지도, 여과되지도 않은 무엇인가가 남겨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다. 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까?

국제기드온협회(Gideons International)가 있다. 성경책을 인쇄해서 호텔에 배부하는 단체가

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모든 훌륭한 해설자들이 부연 설명을 덧붙일 줄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 하시고 있는 선한 일은...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를 그토록 구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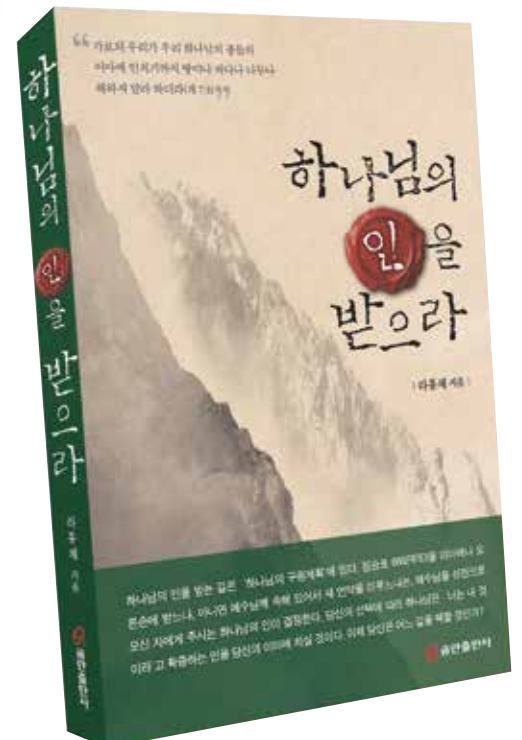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바이러스, 실업, 폭동... 미국을 구하소서

(1면에서 계속)
그는 지역사회에 주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전도와 제자훈련을 주도했다. 여기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Resurrection Houston)의 담임목사(Patrick PT Ngwolo)는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며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은 플로이드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한다.



플로이드를 통해 세례를 받은 던(Nijalon Dunn)이 공개한 세례 후 사진. 성경을 든 플로이드

흑인만 50여명이 넘는다. 그만큼 가난과 폭력의 악순환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플로이드와 같은 외부인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도시에서의 제자훈련이 결정적이다. 농구를 했던 코트 바로 옆에서 총격이 끊이지 않았지만 플로이드는 세례를 실시했다

결론으로, 성경은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말해준다. 카인에게 죽은 아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러나 무고한 죽음은 있어도 무의미한 죽음

은 없다. 우리 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고한 죽음이었으나 무의미한 죽음은 아니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미국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카오스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 치유해달라는 의미로 부활되기를 소망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이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분별력, 동정심, 믿음으로 간구

(1면에서 계속)
성도들은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서로에게 알릴 수 있고, 모임 내 다른 성도들이 빠른 자가 격리를 실행할 수 있다.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 충족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만남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면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만나면 감염될 위험이 줄어든다.

교회 전체에 작은 안전장치를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수록 지역사회에 감염이 존재하는 동안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비슷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우리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보호 제공

교회의 사역이 재개될 때 적어도 2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단위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므로 교회에서 개인별로 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다. 가족단위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무증상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다. 마스크 사용자의 비율을 늘리면 모든 사람이 착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도록 서로 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전염을 철저히 막지는 못하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의 소규모 모임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감염수준은 여

전히 높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코로나19가 가까운 시기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교회활동을 재개한 후에도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와 친구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는 보건부서가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코로나 감염환자가 교회에 참석했을 때 지역 보건부와 협력, 당일 모든 참석자의 연락처를 파악해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보건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교회는 신속하게 감염환자에게 통보해 스스로 격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지킨다면 다른 성도들이 감염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접촉자들의 연락처 파악 및 추적을 진행할 때는 속도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6면으로 계속)

RESET-성경 안으로!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지만,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카스너 목사 가족은 피난행렬을 역행해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겨우 6주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떠나면 동쪽으로 장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맑은 교회도 없이 동독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겼기에 죽음을 무릎 쓰고 고난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애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6주된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했고 통일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환경부장관이 되었습니다.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 2017년까지 4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소박한 동독의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의 딸은 바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입니다 (떠온 글).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해 가야 할 길을 간 '카스너 목사가족'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두려움과 힘들음을 겪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오늘(5월 30일) 미국 내에서만 사망자가 10만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총 5만4천명인데,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미국은 불과 3-4개월 만에 '3년 한국전쟁'의 2배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류는 지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장 심했던 뉴욕, 뉴저지 등 동부지역도 이제는 서서히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코로나가 워낙 전파력이 강해 언제 다시 확산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이런 저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WHY"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찾아나가는 "WHAT"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나와 이 세상이 겪는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우리들과 모인 교회에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며 만나는 일이 "WHAT"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딤후3:1-5) 가운데 하나인 감사치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부모 형제 친구 집도 방문하며 살았던 그동안의 매일매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들이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권적으로라도 깨닫게 됩니다.

(16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대전문
뉴욕(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 201) 346-0030
5 Brimfield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촬영법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 안내, 치아미백(엔플랜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 모두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S, 시스리앤스 매도칼렌, 데스트)
- 침묵 (앤드 슈사쿠 흥성사)
-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메아)
- 독독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리처드 탈라, 리더스북)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편지

미주에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귀한 보호하심이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참으로 질병 가운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질병의 태풍 한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뉴욕은 확진자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 왜 최고의 의료 시스템 가진 미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된 이유를 처음부터 질병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래도 내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니”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렇게 미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확진자들을 철저히 추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는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여 그것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발전된 정보 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에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죽는 자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대처 방안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어도 확진자를 철저히 추적하였다면 지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참 자유와 인권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개인 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철저한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다른 나이 먹은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부분별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보

니다. 자신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유분방하게 사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자들을 다 막을 수 없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공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까지 포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미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칭함을 얻어 깨끗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을 하더라 죄를 덮는다고 하였었습니다. 남의 프라이버시를 생명처럼 존중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나라에서 나

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은밀한 약점이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권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개인주의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들까지 포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미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풍족한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만호 목사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속에 LA의 한인 일가족이 모두 감염돼 80대 노모는 숨지고 딸 부부는 중환자실에서 증세가 너무 악화되어 어머니 입종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실상가상으로 김씨 부부의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도 감염이 되어 코로나19로 온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5월15일자 뉴욕한국일보).

4월에는 코로나19로 죽어가면서 6남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병상의 어머니가 우리를 울리더니 지난 5월 8일 어머니날에는 멕시코 간호사 어머니가 워싱턴 주 에버렛의 42세 리터는 숨지기 전 병실 문에 사이에 두고 보지 못하고 무전기로 아이들과 작별했다. 아들 엘리야로스는 “동생들을 잘 챙길게요. 아이들도 엄마가 원하는 어른으로 잘 자랄 거예요. 사랑해요”하며 늘 아이들을 우선시 하며 살았던 어머니를 위로해서 주위를 지켜보던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더 살아야 할 분들이 조용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통 코로나 소식에 스트레스를 넘어 남이 아닌 나에게도 그 염려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피곤은 스트레스와 함께 만병의 원인이며 건강의 적입니다.

의사들은 속상하고 피곤할 때 쉬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먹고 자고 운동하고 여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로만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속상하고 피곤할 때”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43편에 “영혼”이란 말 5번이나 썼습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정신도, 육체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속상하고 피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 달 가깝게 집에 갇혀 살므로 개인문제, 가족 문제, 먹거리문제, 건강문제, 직장 사업문제 등 속상하고 피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4절 “내 심령이 속상하다”, 7절 “내 영혼이 피곤하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다”, 11절 환난에서 건져달라, 12절

“나의 원수들 좀 끊어 달라,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좀 멸해 달라고 합니다.

본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대적의 고통이 심해 죽지 못해 사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속상하고 피곤할 때 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1. 주를 목상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5,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빛나간 나를 제자로 인도해줍니다. 말씀은 낙심천만할 때 제일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여 속상하고 피곤한 나를 위

돌아와 왕위도 빼앗기고 섬으로 귀양 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말씀 목상하고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죄인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저주는 복으로, 질병은 치료로, 절망은 소망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뀝니다.

2.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

을 관해 얘기합니다. 종의 자세로서 우리의 주인, 왕(Majesty) 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이 생각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쿠싱 목사가 가사를 쓰고 생기가 곡을 부쳤는데 쿠싱 목사가 목회도중 성대에 이상이 생겨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설교 못하는 목사는 무기 없는 병사’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강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찬송을 쓰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는 영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목상하고 말씀 듣고 주안에 머물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종이 되는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 하십니다.

6.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대단하십니다(막1:9-15).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였지만 (12-14) 성령이 매몰차게 광야로 몰아내서 광야 들짐승들과 우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고난으로 오히려 신앙인격훈련으로 (14-15) “하나님나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 관해 얘기합니다. 종의 자세로서 우리의 주인, 왕(Majesty) 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이 생각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쿠싱 목사가 가사를 쓰고 생기가 곡을 부쳤는데 쿠싱 목사가 목회도중 성대에 이상이 생겨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설교 못하는 목사는 무기 없는 병사’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강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찬송을 쓰라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는 영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목상하고 말씀 듣고 주안에 머물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종이 되는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 하십니다.

4. 주를 향하여 손들과 영혼을 주께 맡기는 기도가 절절했습니다(6, 9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6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9절)

입니다. 걸만 번지르르하지 내 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권력, 명예, 지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성은 무너집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교만하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뱀이 버릴 수가 있고 인생을 끝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무너지는 눈덩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55:22)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절하게 기도드리면 영혼이 잘될겁니다! 범사에도 잘 되시며 강건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병, 생활의 병이 다 치료될 것입니다.

결론

다윗이 심령이 속상하고 피곤할 때 영적인 방법을 찾은 것처럼 주님을 목상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삽시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절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평강이 임하고, 강건하시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usfgc@hotmail.com

속상하고 피곤할 때

시편 143편 4-7절

로해줍니다.

5절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즉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여리고성을 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상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아침에 나오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를 의뢰 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회복, 치료 시킵니다.

나폴레옹이 노를담 사원에서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자 이를 빼앗아 자신이 머리 위에 썼습니다. 이는 바로 나폴레옹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러시아를 정복하려 할 때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차서 한 귀족 부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은 자신이 성취한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패전하고

을 실행해야 합니다(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게 하소서!”(10절).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며,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많습니다. “고난 당하기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히12:6).

물론 고난은 참 싫은 것입니다.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큰 의미와 가치가 기다려요. 인간성숙, 신앙성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힘들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뭐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다 반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혹자는 문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에 보냈을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위함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호2:15)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아골 골짜기, 인생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에스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역경지수가 크면 축복지수가 커집니다. 속상하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12, 10절).

“나는 주의 종이입니다”(12하).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10).

인도해 달라는 것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신령한 것에 불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복음 전하고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은 믿고 따르는 것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소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를 향해 손을 펴고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빈 마음으로 오직 내 영혼이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속상할 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10세기 초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사라센 제국의 왕인 압둘라라만 3세는 49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의 1년 수입은 약 3억3천만 달러(약4천억원)에 달했고 그의 부인 수만 3,321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만 616명을 낳았습니다. 아마 찾아와도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한 말은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 날은 다만 14일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물질과 환경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내용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은 절대적으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대통령이 권력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만드는 정치적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까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한 예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여 공립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 화장실뿐 아니라 여자 옷갈아 있는 방과 여자 샤워실까지 함께 혼용, 사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미션역에 내렸던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동안 심각하게 잃어버렸던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시민들의 안전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기에 그 비교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문 여는 것이 다른 우선순위에 비해 지나치게 지연되는 여러 주들의 정책들이 부당하며, 그 전주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에는 각주의 주지사들에게 교회 문을 다른 “필수 비즈니스”와 같은 시기에 등장 열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열고 공동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필수적인 것!

트럼프 대통령은 CDC(질병관리본부)가 새로 발표한 분류에서도 교회를 “Essential-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고 설명하며, 백악관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책을 다음처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들이 교회들을 신속히 개방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주지사들의 교회 문 여는 것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명령을 미연방 차원에서 무효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더 많은 기도와 예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류를 이르는 주들의 주지사

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예배 장소들을 폐쇄하는 반면, ‘주류 판매점과 Planned Parenthood 같은 대 낙태시술센터’들을 “Essential, 필수”적인 비즈니스로 열여둔 것은 부당하며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미 그전부터 교회문은 빨리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월 17일 기자들과 만났을 때 다음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여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State)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에 속한 주지사들이 속한 곳들이다. 그들은 교회를 닫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동시에 나라를 해치고 있기에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 존재이다. 나쁜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필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나라에서 여러모로 필수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있고 싶어한다.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멋지

고 괜찮은 일이지만,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친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는 결코 같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시시피에 있는 교회에 대한 끔찍한 방해에 뒤이어 더 확실히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코로나바이러스 폐쇄 기간 동안 교회 개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시시피 교회가 지난 27일 교회에 갑자기 일어난 방해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누군가가 일

를 드린 혐의로 지방 당국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후 Thomas More Society 변호사들이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와 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반 기독교 성향으로 알려진 주(State)들도 지연시키던 교회 문을 5월 말부터 여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각 주마다 교회 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기도해왔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나태시술소가 선택적 낙태를 통해 태아를 계속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와 예배를 열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지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계속하여,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되고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헌법이 존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를 드린 혐의로 지방 당국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후 Thomas More Society 변호사들이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스티븐 크랩튼 변호사는 “우리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여기 First Pentecostal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확고한 자세가 있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일만으로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롭 목사는 어디를 가든, 누군가 교회에 불을 지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도 이 교회는 소송에서 판사가 drive-thru 서비스를 하도록 교회 개방을 허락하면서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와 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반 기독교 성향으로 알려진 주(State)들도 지연시키던 교회 문을 5월 말부터 여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각 주마다 교회 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기도해왔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나태시술소가 선택적 낙태를 통해 태아를 계속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와 예배를 열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지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계속하여,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되고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헌법이 존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한계시록 여성 성경공부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6절에는 천년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는데 첫째부활은 무엇이고 둘째사망은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남경

A: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많은 해석들을 만들어낸 난제에 속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은 보기보다 간단합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는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의 이 말에서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후천년설, 전천년설(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 보다 성경계시와 가장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믿는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The Apocalypse)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사이의 긴 기간을 천년으로 해석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첫째부활에 참여 둘째사망은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불못

합니다. 무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천년왕국시대라는 소위 현(現)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 상태에 들어간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권성수 교수의 말처럼 천년왕국은 황금시대(Goldenage)가 아니고 백은시대(Silver age)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보좌가 나오고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과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비 순교자의 영혼 두 그룹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별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겪은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칼로 목베임을 당한 첫 순교자로 죽었습니다(행12:1-2). 반면에 사도요한은 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했는지 순교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다 죽었는지 예수 안에 살다가 죽은 성도의 영혼이 현재 살아서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히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천국을 누리는 이 복이 소위 첫째부활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첫째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참고로 둘째부활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부활에 참여한 것은 그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둘째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는 마귀, 짐승, 거짓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지옥의 불못을 말합니다(참고로 첫째사망은 한 사람이 인간역사 과정 속에서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세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목회, 영회, 종교동부: (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회, 영회, 영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하), (254)501-4933(상)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얀마의 캄티 산족

캄티산족은 12세기에 서북쪽 미얀마에 있는 친윈(Chinwin)강을 따라 정착했다. 그들은 3개의 작은 캄티 롱 타이(Khamti Long Thai) 주를 이루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버마인에 의한 노예상태를 탈출한 사람들은 말리(Mali)와 마이(Mmai)강 사이에 있는 북미얀마의 비옥한 삼각주, 현재 위치에 정착했다. 다른 산족 사람들과 관계는 있지만 북 산족과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는 특징적인 민족 그룹이다. 많은 사람들은 버마어와 그들의 언어인 캄티어를 둘 다 구사하며 캄티어는 그들의 고유문자인 립타이(Lik-Thai)를 사용한다. 미얀마 또는 버마는 쿠데타, 전쟁, 반란 등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버마 군부는 정부와 상업적 측면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요구하는 다양한 인종 그룹에 대해 통제를 계속해오고 있다.

삶의 모습

농업은 산족 경제의 원동력이자. 쌀은 주요 생계이자 시장에 팔

작물이다. 전통적으로 쌀은 수로가 잘된 논에서 재배되지만 농부들은 가끔씩 구릉지대 쌀을 경작하기 위해 화전을 일구 재배하기도 한다. 다른 작물로는 차, 콩, 땅콩, 커피 그리고 목화 등이다. 더 큰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에 내다 팔 야채를 재배한다. 농사는 기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소나 버팔로를 키워 무거운 나무 쟁기를 끌게 한다. 산족 농부들은 길이나 강둑을 따라 군집한 1000이나 500가구의 촌락에 거주한다. 많은 인종 그룹들과 다르게 산족은 씨족을 갖지 않고 가계에 중요성을 두는 것 같다.

일부일처제의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의 동의에 기반 한다. 신혼부부는 첫 이삼년 동안 또는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가질 때까지 신부의 집에서 함께 산다. 공동체 안에

서 노출의 위협 또는 명예의 손상 등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산족의 사회 문화는 연령, 성, 그리고 부에 기반해서 계층구조로 만들어진다. 미얀마 헌법은 수 상부터 선출된 마을 우두머리까지 행정 관료의 끊이지 않는 계통의 정치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는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선출하고 세금을 감사할 목적으로 지역적 단위로서 국제조사에 기록이 된다. 보통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부는 화제, 기근, 홍수, 재앙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전통적인 적들 중의 하나다.

캄티 산족은 또한 서북부 타이랜드와 동부 미얀마를 통해 무역 상품을 유통시키는 도매상인들이다. 운송수단의 발달로 여성들은 서로 개별적인 무역을 하는 대신에 마을시장에서 팔리는 지역 물

건의 소매상이 됐다. 이 민족은 아름다운 단추나 단검을 만드는 데 기술이 있는 훌륭한 은세공인들이다. 그들은 또한 대나무 제품과 종이를 시장에서 매매한다.

신앙

불교는 5세기에 미얀마에 소개됐으며 산족의 다수가 불교도다. 불교신자의 목적은 열반(nirvana), 즉 최고의 평안에 이르는 중도를 찾는 것이다. 산족의 세계관은 '힘 보호(power protection)' 개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서 행동의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석가와 불교승려는 가장 능력 있는 존재이며 마을의 영들과는, 가족 그리고 숲과 관련된 영들이 따른다. 환생은 전생에서 얻어진 쌓인 공과에 따라 결정되며, 그

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불교도에 게 있어 죽음은 만일 그가 선을 행하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죽음이러는 것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단지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극소수의 캄티 산족 크리스천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 현재 캄티 산족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으며 아직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 예수영화도 기독교방송도 캄티족에게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선교사와 성경번역이 필요하다.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위해 그들이 버마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선 생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상이 보는 '교회에 현장예배...'

최근 CNN이 "교회를 다시 열기위해 서두르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문화전쟁에서 최전선이 됐다"며 신앙인들이 빨리 교회를 다시 열려고 하는 4가지 이유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문을 즉시 열라고 주지사들에게 말한 후 나왔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미국 주류언론들이 기독교 지지 세력을 위한 정치적인 서비스라고 분석한 바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교회 현장예배 재개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부 교회들이 주정부의 명령을 무시했다며, 이에겐 정치범을 넘어서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종교자유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타종교와 비해 교회들은 자유롭게 종교활동 하는 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본다. 무엇보다 안전지침에 따라 식당과 쇼핑몰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CNN은 "신앙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 순간 어느 때보다 교회를 필요로 하며, 교회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둘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모임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파들에게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신앙에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많은 교회는 처음에 온라인 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 팬데믹에 적응했지만, 신앙인들에게 주일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경우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원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성찬 등 예식의 의미를 설명하며 직접 모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로 모이는 장소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 슬픔과 상실을 경험할 때 위안과 도움을 구하는 곳이 교회라고 강조했다.

셋째, 어떤 교회에게는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현금하도록 요청했지만 상대적으로 현금액이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톨릭교회는 현금이 줄어듦에, 미국의 1만2천 개 이상의 가톨릭교회 가 연방정부로부터 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등 말씀에 의지해 "병과 박해가 증가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멈

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아시아, 유럽보다 코로나에 강한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사망률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는 과학자들이 위생과 방역, 기후, 바이러스 변이, 면역력, 미생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5명, 중국이 3명, 일본이 7명, 파키스탄이 6명, 인도가 3명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은 0명에 가깝다. 반면 미국은 100만명당 사망자가 300명에 근접했고, 유럽 국가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500명을 넘어선다. 방역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도 약 100명이다.

WP는 우선 사회적 통념을 들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아시아가 코로나19에 더 빨리 대응한 반면 미국과 유럽은 단일처럼 생각하며 초기대응을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대응이 빨랐다고 볼 수 없는 일본과 인도의 사망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기후의 영향이다. 열과 습도가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이런 기후대에 속한다. 그러나 브라질과 에콰도르 등 다른 적도 국가에선 발병과 사망자가 많아 기후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인구학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아프리카가 이탈리아 북부의 고령사회보다 바이러스에 더 큰 저항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는 대입시키기 어렵다.

바이러스 변이도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은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 퍼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변이 출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유전자와 면역체계의 차이도 거론된다. 노벨상을 받은 일본 면역학 전문가 다스쿠 혼조는 "아시아계와 유럽계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의 대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츠히코 코다마 도쿄대 교수는 동아시아에는 수백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역사가 있다며 일본인의 면역체계는 코로나19가 마치 이전에 노출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인 것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비 연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인 비만에서 국가 간 차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미국(36%) 영국(28%) 스페인(24%) 이탈리아(20%) 등 서구 국가의 비만율이 높은 반면 중국(6%) 한국(5%) 일본(4%) 베트남(2%) 등 아시아 국가가 낮다.

워런 목사 '흑인 사망'에 목회서신

"인종차별과 편견, 증오가 여전히 우리 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이란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뤄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새들백교회 릭 워런 목사가 지난 29일 백인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인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 과정 중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이 사건으로 미국 75개 도시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워런 목사는 이메일로 '인종차별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란 제목의 목회서신을 발송했다. 그는 이메일에 첨부된 자신의 글과 영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차별에 목소리를 낼 것'과 '미국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영상에서 워런 목사는 "또다시 비무장한 미국 흑인 남성이 불필요하게 사망했다"며 "21세기에 여전히 이런 불공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격분한다"고 했다. 그는 잠인 31장 8-9절 말씀을 들며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 말씀은 편견과 억압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이럴 때 정의가 구현된다고 성경은 말한다"고 했다.

약탈과 방화, 유혈사태로 변진 시위에 관해선 "선으로 악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예수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듯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며 "불의와 공평이 무한 제도에 얼마나 화가 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인종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정의와 자유가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새들백교회가 연대할 것임도 밝혔다. 워런 목사는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경멸과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168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새들백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대할 것이며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성을 창조

한 것이 주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곧 창조주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를 공손함으로 대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우소서"란 기도도 영상을 마무리했다.

워런 목사 외에도 미국의 많은 목회자가 인종차별을 질타하며 정의와 평화를 촉구했다. USA 투데이는 31일 시위 현장을 지켜본 목사들의 설교를 전했다. 마틴 루터 킹이 생전 설교한 애틀랜타 에베네셀침례교회의 라파엘 워노크 목사는 "탐욕에, 증오에, 편협함에 굴복하지 마라"고 설교했다. 워노크 목사는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면서도 "항상 사랑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라. 우리가 그럴 때, 사랑이 항상 이긴다"고 말했다. 미국 밀워키에선 지역 목회자들이 대규모 평화 시위를 주도했다.

시위대와 인종차별 항의 NYPD 영상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추모 대열에 가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SNS에는 미주리아와 뉴욕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관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졌다.

뉴욕 퀸즈에서 흑인 지역 언론을 운영하는 알리아 아브라함은 찍어 올린 이 영상에는 시위대와 함께 무릎을 꿇은 뉴욕경찰(NYPD) 소속 경찰관들이 등장한다. 시위대의 초청으로 시위 한복판에 서게 된 이들은 그간 억울하게 숨진 흑인들의 이름이 연명되는 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추모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은 수년간 TV나 운동장에서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런 정말로 좋은 신호"라며 "이제 우리가 짓밟히거나 총에 맞지만 않는다던 더 감명받을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뉴욕의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시간주 제네시 지역 보안관인 크리스 스완슨은 시위대의 "함께 행진하자"는 요구에 "어디로 가고 싶냐? 밤새 걸어도 상관없다"며 흔쾌히 수락해 환호를 받았다. 미주리주 퍼거슨에서는 지난 30일 퍼거슨 경찰서장이 휘하 경찰관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시위대와 함께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퀸즈 지역 경찰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함께 무릎을 꿇은 영상을 첨부하며 "이렇게 변화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더밋 셰이 뉴욕경찰청장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듣고 함께 일하고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의 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무릎 꿇은 경찰의 모습은 뉴욕경찰의 정신을 구현한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흑인 사망을 규탄하는 시위는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

분별력, 동성심, 믿음으로 간구

(3면에서 계속)

△모든 사람이 앉은 자리를 기록할 것. 예배실 및 모임에 좌석과 줄 번호(또는 테이블 번호)를 지정, 모임에 참석할 모든 사람을 기록할 것. 이름, 연락처 및 앉은 자리 기록. 각 세대별 한 사람만 등록하면 되지만 그룹의 인원수를 기록해야 함 △최소 3주 동안 기록을 보관할 것 △모임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보건부와 연락을 취할 교회 내 담당자를 지정할 것.

다음 단계로 갈 시기 결정

이 단계별 접근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활동 횟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다.

각 교회는 먼저 소속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감염률이 올라가거나 여전히 높으면 현장사역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염률이 떨어지고 낮아진 상태라면 계획의 1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1단계로 전환하기 전에 최소 3주 동안 코로나19 사례와

사망자가 일관되게 하향 추세를 보여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하향 추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감염률 또한 낮아야 한다. 광범위한 검사 없이는 지역사회에 실제 감염 수를 알 수 없다. 검사가 증가할 때까지 보고된 사례와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락 추세와 낮은 감염률이 지속되면 현장사역을 재개하도록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도들이 결정

을 내리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22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경우 사망 및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3일 동안의 평균치).

△1단계: 3주 연속 매일 5명 이하 사망 △2단계: 3주 연속 지속적으로 1명 이하 사망 △3단계: 3주 연속 지속적으로 5건 이하 △4단계: 3주 연속 매일 1건 이하

단, 위 사항은 제한된 정보와 지식이기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정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 닿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역을 언제 재개해야 할지 그리고 안전하게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이다. 이러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경적 진리와 이용 가능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침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하고 싶다. 현재 형태의 코로나 유행병은 지나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현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분별력과 동성심, 믿음으로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식

전 세계가 위기의 늪에 잠겨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이 멈추어선 듯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외부 출입과 여행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 집안에 갇혀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직장업무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거나, 실업자의 숫자가 전문학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살의 불편을 감수하고 조심스레 살아가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안을 커져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정복하려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속한 시일에 성공할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도 매우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한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누구도 분명한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자신의 의견이 '추측'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저 향후 사회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3세기, 13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도 전염병이 창궐한 바 있다. 각 시대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우리에게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해주지만 그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과거 사회와 자연 환경이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위기 의식이다. 현실을 속히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위기 자체가 자연스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만나 각성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이는 교회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초대교회 이후 줄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경우이다. 지금은 전혀 다르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교회 모임이 유지되어왔다. 만일 이런 도구조차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각종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

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점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미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면 서서히 확대될 것이다.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인터넷 예배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예배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시대와 유사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서 현대교회 역시 중세교회가 범한 중대한 과오, 즉 각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경건한 삶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현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만 신앙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구 또는 무엇을 탓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단순히 교회 중심의 신앙의 맹점이 무

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심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 공동체 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또는 히브리서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배교의 위협을 포함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중심된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세교회처럼 교회 중심의 생활을 구원이나,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그가 흘리신 피로써 구원 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이 알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개혁된 교회의 모습은 한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동일한 소망을 지닌 활력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였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2)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교인이 흠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집중하는 일에 매진하면서도, 성도를 관리하는 차원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적 위기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엇인지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

주일이 되면 성도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찬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TV, 컴퓨터, 또는 휴대폰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Zoom으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격려하며 신앙을 다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 역사의 결집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 현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재차 확인해야 할 소중한 사실이다. 이것이 16세기 중

중세 가톨릭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
코로나-19로 교회는 신앙공동체임을 재인식 시켜

모이는 장소로 인식되어왔다. "난 교회에 다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지는 "나는 신앙이 있다"라는 말로 대체된 것이다. 교회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지닌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보자면 별 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받아들임으로, 성경적 교회관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였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미사에 참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정립하였다. 자연히 교회는 더욱 조직화되었고 절대적인 교회 제도를 취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서유럽 전역에 모든 마을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과거 중세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도 비추지기에 나름 신경을 썼겠지만,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매우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초기에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집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서 그냥 "열심히 바라보는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현재는 인터넷 예배에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 예배를 중시하여 이루어졌던 신앙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주일예배에 빠지면 교회에서 즉각 연락이 와서, 미안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한 성도의 진솔한 나눔이 기억난다. 중세교회와 유사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닌 성도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

고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교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들은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 이상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이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곧 교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성화되며 그를 머리로 삼아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지상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있다. 교인이 되는 것은 매우 쉽다. 교회에 어느 정도 출석하면, 정식 교인이 된다.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에서 발원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러기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진정한 신앙을 지닌 성도가 되는 것의

개혁된 교회

교회의 개혁은 외부적으로 제도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각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가나안 성도'는 코로나-19 보다 한참 오래전부터 생겨난 현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라도 '가나안 성도'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접하는 교회도 겸손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지도자들이라면, 과연 현재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혹시 성경의 진리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욱 중요시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 생각이 큰 힘을 발휘하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신보다 정치적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각 성도들의 성결과 신앙적 성숙보다 교회가 더욱 커지고 힘을 갖는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의 개혁 방법과 과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교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도구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 계신다. 각 성도의 신앙이 중시되고, 가정을 신앙 교육과 실천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이 개혁에 순종하며 동참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Lists various churche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

리더십 코멘터리 (112)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AC 시대의 리더십과 대처방안

화제가 된 세상 리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예상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의 공격은 가치주에 장기 투자한다는 그의 투자원칙까지 바꿨다.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에게도 바이러스의 공격은 예상 밖의 미지의 세계인 셈이다. 아무도 내일과 미래를 예견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다.

“앞으로 몇 십년간 만약 무엇인가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다. 미사일이 아니고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리더십을 기대한다.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침착성이다. AC 시대에는 침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강력한 리더의 방향제시를 원한다. 패닉은 상황을 폭넓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상태를 유발하고 그 결과 터널 시야는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침착한 리더십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그러나 당황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위기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리더십의 역할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상황을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를 구

출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고민한다. 이는 목회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 필요하다. 화상을 활용한 모임, 심방 등이 가능하다. 아이들도 온라인 학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터 구축이 필요하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가정의 역할 강화, 세대통합 예배 준비가 중요하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DIY 공과학습 시도, 교회로 찾아오는 드라이브 스루(주일관련 패키지 및 간식) 활동, 모임의 숫자나 횟수보다 의미 중심의 모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가정예배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는 가정예배 인증사진을 받고 주일 예배시 전 교인에게 공개하고, 아이들의 율동 영상을 올려 찬양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개신교회의 구제, 삼김 사역의 총량을 보면 타종교에 비해 월등하지만, 사회에서는 교회가 마치 방역에 대해 말을 안 듣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 교회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대화하며 함께 나누는 사역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을 찾아가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협력하고 교회에서 생필품, 마스크 등의 도움을 줄 때도 교회가 판단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을 선정해 제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AC 시대의 리더십 코멘터리

침착과 겸손으로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돌보고 격려 위기에 ‘정말 중요한 것 위해 살고 있는가?’ 자문해봐야

미생물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대부호 빌 게이츠의 통찰력이 관심을 끌었다.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에 의해 죽을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그의 예고 때문이다. 빌 게이츠의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과 예견력은 MS를 통해 일찍이 증명되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인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에 손을 뻗어 엄청난 재력을 얻었으니 대단한 능력자이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거금을 싣듯 내미는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바로보고 걱정과 헌신을 함께 할 리더가 그리워진다. 영적 통찰력과 행동 파워를 가진 리더가 앞장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성실한 손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게 될 것이다. 위기를 당할 때 리더의 두 번째 자질은 겸손이다. 영적리더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야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영적리더는 양들이 리더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끝났을 때, 어떤 리더가 충성된 종이었던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이다.

리더의 행동은 신학적 표명이다. 지도자로서 영적리더가 취하는 모든 것에는 신학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리더의 행동은 건강한 믿음과 신학에서 나와야 한다. 질병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리더의 결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영적리더는 교회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제기될 비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 교회 밖에서 제기하는 비난에 대해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더 고통스러운 비난은 교회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나오는 비난이다. 예배 중단을 결정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계속 모이기로 결정하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조롱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인생이란 긴급한 위험이 닥치면 우선 순위가 바뀌게 마련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깊은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위해 살고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AC 시대의 강력한 영적리더십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대처 방안

사회학자들은 코로나 전후인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어 대비하고 있다. 교회도 AC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도들의 영적혼란과 비신앙화를 예방하고 더욱 확고한 교회행정과 신앙교육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의 대응은 대단히 탁월했다. 설교방송과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큰 도움이 되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사용이 힘든 작은 교회의 경우 카카오톡 라이브톡,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영상예배가 가능했다. 교회는 코로나 이후 영상예배를 멈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힘, 배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감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분노와 낙심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미국 오리건대학교(The University of Oregon)의 신경과학자인 크리스티나 칸스가 감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감사한 마음을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뇌를 영상장치로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뇌의 특정부위에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실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실망과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고도의 뇌 발달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뇌의 반응을 ‘Reset(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힘들고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Reset’ 버튼을 눌러 상처와 아픔을 지우고 새로운 장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 아치볼드 하트(Archibald D. Hart) 교수는 그의 저서 “당신도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15 Principles for achieving happiness)”에서 진정한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감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와 불평의 기로에 섰을 때, 실패를 또 다른 성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원망과 비난을 멈추고 주변에 끊임 없이 감사의 부메랑을 날려보세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나의 배우자, 자녀와 환경을 감사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와 행복한 기적을 만듭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요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9)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4:4)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망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양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40 162 St, #2,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6: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양찬양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5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구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선교사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변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후회함이 없는 위기관리”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오늘 우리는 커다란 위기가 운데 처해 있는 듯 합니다. 이 위기는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 모든 분야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부주의하거나 무심하거나 그릇 대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리는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였는지를 두 가지 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울 왕은 위기 상황 관리에 실패한 왕이며 다윗은 위기관리에 성공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후회함이 없는 위기관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서적인 위기

관리의 팁은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에는 위기관리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시107:20).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위경을 이야기합니다. 곧 위험한 경지 곧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후회함이 없는 위기관리의 지혜를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

와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시107:1).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쉬 낙심포기하지 않게 하고 위기 중에서도 밝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은 바로 위기 관리에 자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늘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시107:6-7). 기도는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위기 일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는 위기에서 빠져 나가게 하고 위기에

서 건짐을 받아 그 위기를 통하여서 전혀 뜻 밖의 은총에 이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파악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적인 위기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알아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위기는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극심한 불신앙적 반성경적 행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듯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시107:20). 흔히 위경을 만나면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믿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곧 말씀을 보내시어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관리하셔서 절대 후회함이 없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대체로 후회스러운 지난날의 위기관리 부실함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관리의 팁이 많이 있음을 알지만 가장 확실한 위기관리의 비결은 성경적 위기관리론입니다.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위기관리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단체모임 오픈 내용검토 및 상황분류 태평양법률협회 주간 화상 콘퍼런스 열어

태평양법률협회(PJI)는 5월 28일 전국적으로 화상 콘퍼런스를 시행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5일에 발표한 종교단체모임 오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7가지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 각 주지사가 지혜롭지 못한 결단과 최악스러운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종교단체모임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교회 문을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돈 속에 있다. 2) 권위자 등록과 투표에 대한

심각성을 의논했다. LA에서 약 50여마일 동북쪽에 위치한 팜데일에서는 지난 24일 시청앞 광장에서 연합 야외예배를 시의회 후원으로 드렸다. 하지만 LA시에서는 절대 종교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 법안 제안자들이 기독교에 우호적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팜데일 시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서로 대화를 통해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의 공무원 선출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는 결론이다. 3) 홈스쿨링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폐쇄된 학교가 다시 열게 된다 해도 이미 많은 학부모가 주정부 교육정책을 불신, 내년부터는 홈스쿨이 전국적으로 36%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0주 이상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학부모들은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홈스쿨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됐으며 홈스쿨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4) 본 협회는 캘리포니아주를 위시해 오리건, 워싱턴, 뉴욕과 뉴저지에 소송들을 걸어놓고 있다. 본 협회는 많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중요한 소송들이 순회합소법원에 걸려 있고, 항소법원에서는 본 협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법원이 오바마행정부, 더 나아가서는 클린턴행정부 때 세워진 판사들이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 위협조적이다. 5)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악스러운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건부 개방을 허락하고 있지만 아직 온라인예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뉴섬 주지사는 교인수 25% 이하와 100명 이하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중대형 교회에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마다 이원리를 적용하면 되며 이것도 모자란다면 야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드라이브인 예배를 포함한다면 얼마든지 가

능하고 코스타메사 갈보리체플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다고 보도했다. 6) 교회가 재개방하는데 있어서 카운티세리프나 경찰당국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지난 25일 뉴섬 주지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카운티가 어떻게 허락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모든 카운티 절반 이상이 주지사 명령에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재개방 퍼밋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카운티에서 주지사의 발표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만 알면 된다. 그리고 주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7) 이제 제2단계의 식당들이 곧 열게 된다. 그러면 보통 오는

손님의 수가 50%로 줄겠지만 그래도 식당들을 오픈할 계획이다. 그러면 큰 식당에 찾아가 이들이 비즈니스하기 전 한 시간이나 한 시간만 정도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논해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Blue State 즉 극진보주의 민주당 소속이지만 모든 카운티가 다 진보는 아니다. 오히려 카운티 중 보수가 더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헌신이나 손해 또는 기타 어려움을 피하려고 “완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재개방에 있어서 다른 후보보다도 캘리포니아주는 더 더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딘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태평양 법률협회)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5)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8) 왕정 복고(王政復古)와 청교도 운동의 종식 1658년 크롬웰이 죽자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Richard Cromwell)이 2대 호민관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이 아주 빈약하여 영국의 정치 상황은 다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왕정 복고운동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크롬웰의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Lord Protector)이 되어 급육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당시 크롬웰의 정치권력은 사형을 당한 찰스 1세의 권력보다 더욱 강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영국 국민들은 그의 지나친 급육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좀 더 여유 있는 삶, 즐거운 오락이 존재하는 삶을 원했던 것이다. 만약 크롬웰이 청교도혁명으로 실권을 장악했을 때, 청교도들의 분열의 원인이 된 ‘독립파를 우대하고 장로교도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진정 화합과 성육신적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다면...

의 종말을 알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찰스 2세는 부친 찰스 1세의 원한과 복수(?) 특히 청교도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에 불타 무자비한 박해와 공격을 시행한다. 그는 즉위 후 자신의 아버지 찰스 1세 처형에 서명한 판사들 중 살아있던 13명을 처형하고, 올리버 크롬웰의 무덤을 파 참수하는 부관참시를 시행하는 등 보복정치를 실시하였다. ‘1661년 1월 10일에 왕(찰스 2세)은 재세례파와 퀘이커(Quaker)교도들과 비국교도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때 약 4천명의 퀘이커교도들이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62년에는 종교통일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추방령을 발표하여 비국교도들인 청교도들을 대거 추방했다. 추방령의 골자는 ‘성공회 예식에 따라 목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안수를 받고 목회에 임하든지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강력한 성공회 정책에 의하여, 2천4명의 청교도 목사들이 영국 교회에서 제명당한 후 목사관과 교회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다. 또한 추방된 목사는 전임지로부터 5마일 밖으로 출입할 수 없다는 ‘5마일령’(5Mile Act)을 내려 목사의 주거를 제한하였고 설교권까지 박탈하였다. 심지어 1670

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비밀 협정을 맺고 로마카톨릭 교회를 영국에 복원하려 했다. 그 당시 활동한 대표적 청교도로는 존 번연(John Bunyan), 존 오웬, 리처드 벡스터, 토마스 맨튼(Thomas Manton) 등이 있었지만 이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운동은 하강

그 이후 1685년 찰스 2세 사망 후 즉위한 제임스 2세(James 2, 1685-1688)가 영국 교회를 로마카톨릭교회로 환원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1688년 백성과 왕의 지원군이었던 토리(Tories)당이 종교 정책을 반발하여 외면하였고,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으로 제임스 2세는 폐위된다. 이어 윌리엄 3세(William of Orange 3)가 즉위하여 1689년 소극적 의미의 종교자유령인 “용인법”(Act of Toleration, 관용법)이 의회에서 제정 공포되어 삼위일체교리를 부정하는 단원신론자와 로마카톨릭교도를 제외한 모든 자에게 종교의 자유, 즉 종교다원화(Religious Diversification)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 왜! 청교도 운동이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1662년 이후 급속히 영국에서 종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가문(House of Stuart) 출신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아들 찰스 1세, 그리고 손자인 찰스 2세 등 3대에 의한 적극적인 반청교도정책 때문이었다. 즉 정치적으로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신봉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특히 청교도들에 대한 국도의 혐오와 청교도 혁명으로 죽은 부친 찰스 1세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찰스 2세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청교도들을 향한 전방위 공격 폄박과 무자비한 탄압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찰스 2세는 비국교도들에 대해 공적과 대학에서 추방 및 진입 차단으로 원전 봉쇄를 했다. 이것이 청교도 사역의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큰 원인이 된다. 또 하나의 원인을 들자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유지되어온 청교도들의 연합이 더는 존속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청교도들은 사본오류 되다시피 했으며 그렇게 결속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잉글랜드교회를 개혁자는 소리가 하나로 집약될 수 없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는 하나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그 자유가 장로정치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고집스러운 장로교도들을 꼽았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수장권을 양보할 수 없었던 언약도들(Covenanters)은 왕이 ‘교회의 수장’(Supreme Head)이라는 비성경적 영국 국교회(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장로정치가 필요했기에 이를 철회할 수 없었다고 필자는 본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로 남았고, 잉글랜드는 개혁하지 못한 채 성공회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 신앙과 사상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성공회 국가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그들의 개혁운동은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황제와 극단주의 사이의 ‘중용의 길’(via media)을 걸었다”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교회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단절은 그 당시 절대 권력과 권세의 로마 카톨릭교회와 교황청에 대한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유럽에서 점차 확대 증폭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조그마한 시작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는 역학계의 혼돈 이론 원리)의 시대 상황을 맞게 했다. 이와 같이 청교도 운동은 1세기만 동안 영국에서 진행된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17세기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삶의 모판을 형성하여 하나님 절대주권의 앞장 열매가 된다. [필자주] 1장, 청교도 개혁 운동의 기원(Era)과 배경(Background)의 저술에 서창원(청교도신학과 신앙), 오덕교(청교도 이야기), 배한국(미국 청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알렌 카든(청교도 정신), 곤잘레스(종교개혁사), 김승진(종교개혁자들과 개혁의 현장들), 제프리 헵크스(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James Heron(청교도 역사), Lewis Spitz(종교개혁사) 외 다수의 책을 참조했다. kimjoyh@gmail.com



기로 접어든다. 이와 같이 영국 국교회 내에서의 청교도운동, 즉 청교도 종교개혁은 1534년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하여 피의 여왕 메리의 박해, 엘리자베스 중용정책,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박해, 그러나 청교도 운동은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까지 쥐며 황금기의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 복고로부터 사실상 청교도 운동은 종식된다.

남가주 한인교회 현장예배 재개

드라이브인 예배와 온라인예배 병행

캘리포니아주의 종교단체 모임은 결정으로 남가주지역 교회들이 현장예배가 재개됐다고 한다. 한인 교회들은 현장예배 재개를 앞두고 메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예배를 준비해왔다.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와 남가주기쁨의교회(이환영 목사), 남가주웨슬리교회(박해성 목사), 벨리주나교회(오정택 목사)는 31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으며 함께하는교회(이근환 목사)와 뉴크리에이션교회(김관중 목사)는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러졌다.

이날 오전 11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임마누엘선교교회(이병호 목사)는 이병호 목사 인도로 시작 백승호 안수집사가 대표기도했으며 류종길 목사(본교 회 원로)가 '믿음이 무엇인가?'(히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 목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일상적인 것이다. 완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명

령"이라 말했다. 류 목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감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 또 믿음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고 신념이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호 목사는 "주지사의 교회폐쇄 명령으로 인해 예배필수 요원들만 교회에 모여 온라인 송출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며 "주지사의 현장 예배 재개 방침이 내려져서 그런지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하순경 현장예배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장 예배 재개가 발표됐지만 아직



임마누엘선교교회 류종길 원로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확진 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6월 7일에는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사), 뉴베리팍브릿지교회(김재호 목사), 토랜스 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가 현

장예배를 재개하며,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는 선착순 100명 사전신청자들에게 한해 현장예배를 드리며 그 외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뉴욕일원 교회들 6월 현장예배 준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드라이브인 예배도

코로나사태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한 가운데 6월을 맞으며 뉴욕일원의 교회들은 드라이브인 예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면서 현장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성령강림주일을 맞은 지난달 31일,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오전 온라인 예배와 오후 3시 드라이브인 예배를 실시했으며 뉴욕에베넬에선교교회(담임 최창성, 이재홍 공동목사)도 거리두기 예배를 하며 실시간 중계를 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온라인예배를 하고 있지만 단계적 해제에 따라 6월 현장예배

를 실시할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6월 현장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 명령에 의해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없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교회당에 올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최근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5월말 뉴욕주 확진자는 368,284명, 뉴욕시 201,999명, 사망자는 23,780명, 뉴욕시 16,737명이다. 뉴저지는 확진자 158,844명, 사망자 11,531명을 기록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도네이션 소식을 들은 소방서와 응급 구조대 대장과 대원들은 직접 소방차와 구급차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 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넘치는 감사를 표현했다.

"돈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 나눈다"

필라안디옥교회, 미자립교회/지역사회/선교지에 후원금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국내외 선교지, 지역사회 관공서와 병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 등에 지난 한 달여 동안 3만4천 달러 가량을 지원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1만 달러를 더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구제와 섬김은 코로나사태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쌀과 물을 교회에 도네이션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교회로 가져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물품들이 주변의 이웃들과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됐고, 이를 시발점으로 구제헌금의 손길이 이어졌다.

고난절 특새 때는 특별 새벽 예배 헌금전액이 미자립교회들에게 전달됐고 안디옥교회 안에 스페니시 교회와 다민족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헌금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21일에는 지역사회 관공서인 소방서 2곳(Conshohocken Fire Company #2, Plymouth Fire Company),

응급 구조대(Narberth Ambulance), 비영리단체(Colonial Neighborhood Council)에 총 4만 달러를 전달했다.

국외로는 라이베리아에 안디옥 열방교회가 직접 후원하는 현지 학교와 이웃 주민들 800명에게 쌀 지원을 하고 있고, 안디옥 스페니시교회가 개척한 멕시코 지교회 성도들에게 긴급 구제비를 보냈으며, 최근 A국 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A국 찬양인도사 양성학교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직접 제작한 필터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1000여개, 소독제를 선교지와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호성기 목사는 예배 중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드러진 헌금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성도들, 선교지에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하는 안디옥교회는 이번 구제와 섬김을 통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31회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1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22일(월) 오후 7시에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졸업생은 △목회학과: 김금희, 김영미, 나정선, 박해경, 전행복, 최진권, 한신회 △신학부: 김경, 문인숙 등 총 8명.

▲문의: (718) 463-7163

'100달러의 기적' 프로젝트 전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100달러의 기적'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교회로부터 100달러를 받은 교인이 90일 이내에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전 교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뉴욕센트럴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다. 6월 10일까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516)387-9940 이메일 cpcofny91@gmail.com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시즌2"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시즌2"가 6월 9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열린다. 화상업으로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다음세대 부흥과 그리스도의 편지 △5 Jesus Power를 가진 자녀로 키우기-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변증 △영화 읽기-영화로 자녀들과 소통하기 등 총 40달러. <https://forms.gle/xp6xSQZrKAaMuA9W7>

▲문의: (646)300-4790 이메일: woeltarius@gmail.com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한달 연장

LA 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2기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 있다.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 약화와 체중 증가라는 고민에 빠진 한인들을 위해 개발된 '자기돌봄(Self-care) 온라인 특강'으로 강사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박영배 코치. 강의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사용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YuDoGo.com)에서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http://yudogo.com>

미국장로교 이문희 장로 총회장 출마

미국장로교(PCUSA) 제 224차 온라인 총회에 한인 평신도가 총회장으로 출마했다.



이문희 장로는 동부한미노회 출신으로 1996년 노회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부한미노회 탄생에 기여하며 노회의 각 분야에서 헌신했으며 총회 총대와 총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NCKPC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이문희 장로는 시애틀총회교회, 사진은 한인으로서 두 번째로 2000년 고 이승만 목사가 총회장이 된 바 있다. 이 장로는 산드라 헤더릭 목사와 함께 동사 총회장으로 임후보해 다른 팀과 경선을 벌이게 된다.

한인총회(NCKPC)는 코로나 19 사태로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NCKPC 회원들이 속한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생명의전화, 침묵전화 가장 많아

1-3월 총790회, 남-성도착/여-고독, 외로움

시역 22년을 맞은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상담통계를 발표했다. 총 상담 전화 건수는 790회였으며, 여성(411회)의 상담 전화가 남성(187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침묵전화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성도착(근친상간)이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독, 외로움이 21건으로 2위와 정보안내 18건,

부부갈등과 정신, 정서장애(의처증)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성 고독, 외로움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갈등(가정폭력)이 35건으로 2위, 배우자 부정(본인의 부정)이 33건, 정보안내가 32건, 정신, 정서장애(의처증)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바다윗 목사는 "생명의전화는 동포들의 좌절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전화상담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포들의 힘든 일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 동포들의 상처받은 심령에 재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용기와 격려를 통한 복음의 상담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박 목사는 "불통의 한인사회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화목한 한인사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상담전화: (213)480-0691

(박준호 기자)



조지플로이드 살해 형의시위중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다. 사진은 폭스뉴스에서 보도한 베버리힐스 신발 가게에서 벌어진 약탈을 소방수들이 진압하는 장면

LA 한인타운 등 야간통행금지령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시위 약탈과 방화로 피해속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깔려 죽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사망으로 LA 지역에서 4일째 항의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은 31일 주일 새벽에도 도시 통행금지를 위반, 상점을 약탈하거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체포했다. 시위대들은 "Eat the rich"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베버리힐스의 유명한 쇼핑 장소인 로데오 드라이브(Rodeo Drive)로 몰렸다.

LA 베버리에 모인 시위대 수는 토요일 오후 1000명에 가까웠지만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군중들이 점차 늘어났다. 시위대들이 토요일 밤 늦게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탈자들이 페어팩스 애비뉴의 고급 위탁 판매점, 베버리 그로브 쇼핑센터 내 애플스토어, 멜로즈 애비뉴(Melrose Avenue)의 안경 판매점, 같은 길가에 있는 아디다스, 웨스트 할리우드(West Hollywood)의 메드맨(MedMen) 대마초 약국 창문을 깨고 상품들을 약탈했다.

또한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유리부수고 침입해 가전제품 등 물건들을 약탈했다. 이날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LA시장은 통행금지를 발표했다. 통행금지지는 최초 LA다운타운과 멜로즈 애비뉴 등 시위대가 모여드는 곳에 한해 발표했지만 시위대의 급증으로 인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토요일부터 오후 8시

부터 주일 오전 5시30분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했다. 그리고 개인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경찰을 돕기 위해 500명의 방위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30일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항의할 책임이 있다"며 "폭력이 항거하고 생각하는 시위대의 1-2%는 우리 모두가 저항하는 인종차별과 야만한 자들의 손에 죽은 조지 플로이드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탈과 폭력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위대들이 페어팩스 지구, 다운타운 및 베버리 대로로 모여들어 3번가 교차로를 점령하고, 해산을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대 1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선포했다.

주일오후 시위대와 약탈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은 비교적 평화로웠다. 37와 페어팩스 애비뉴에 위치한 홀푸드 마켓, 노스트롬 백화점 입구와 유리 벽면은 주일저녁 다시 모여드는 시위대의 습격에 대비해 나무로 된 방어벽을 설치했으며 그로브 쇼핑몰입구는 나무로 펜스를 만들어 약탈범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들의 순찰도 늘렸다. 이날 베버리힐스는 오후 1시부터 통행금지를 시행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오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했다.

(박준호 기자)

온라인으로 목회학박사 등 15명 졸업

2020 에반겔리아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설립 25주년을 맞은 에반겔리아 대학교(Evangelia University, 총장 김성수 박사) 졸업식이 5월 29일 온라인 화상모임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열린 온라인 졸업식에는 전 세계에 있는 졸업생들과 객석들이 참여해 현장 졸업식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학원장 원차희 박사 사퇴로

진행된 예배는 전성철 목사(여수 룬교회, 시카고) 기도, 김홍석 목사(안양일심교회)는 '사역자들의 세 가지 무기'(살전5:16-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전했다.

이어 김은혜 박사(로울라대학교 음대교수)가 '오 신실하신 주

피아노 축하연주를 했다.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강순혜 박사 진행으로 목회학 박사학위(D.Min) 황병순 박사(KPM 대만 선교사)를 비롯한 15명의 졸업생들이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문학사(B.A) 학위를 받았다.

총장 훈사를 통해 김성수 박사는 "복음과 신앙의 삶은 개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온라인으로 진행된 에반겔리아대학교 학위수여식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면에 주목하며 통전적인 관점을 갖고 사역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교 이사장 정재훈 박사

와 박영기 선교사(KPM 본부장)의 격려사,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와 본교 후원자인 우상민 박사(살롬치과원장)가 축사했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 황병순 박사(본교 목회학박사 학위 취득) 답사 후 미주교신총회 총회장 김형권 목사 축사로 마쳤다.

한편 학위수여에 앞서 지난 5월 20일 별세한 고 신현국 총장의 추모영상을 상영했다.

(기사제공: 에반겔리아대학교)

코로나19와 교회 [3]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온라인 예배의 역기능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내의 가장 큰 이슈는 온라인 예배일 것이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공중예배의 대체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서둘러 온라인 예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협조하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달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내에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가나안 성도의 증가이다. 가나안 성도는 여러 이유로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여 교회에서 출석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인들을 일컫는 말로 교회에 '안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하여 가나안 성도 혹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 가나안 성도는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회의 큰 고민거리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으로 교회 소속감이 희박해지게 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회에는 성도들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는 설교 서평족의 증가이다. 한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순례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교회 순례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예배 참여시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서 제공하는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들을 찾아서 듣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나안성도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습관화 될 경우 설교 서평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유명 목사의 설교선호와 말씀의 편중현상으로 인한 성도의 신앙저하이다. 온라인에서 여러 목사들의 설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은 욕구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찾아 듣게 되며, 일반 대중들을 위한 온라인 설교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에 편중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설교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만 듣게 된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양육시스템에 의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다양한 신앙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말씀만을 편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신앙지식은 편중되고 저하되며, 믿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설교는 개방되어있고 자료가 남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 때로는 성도들에게 견책의 기별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설교의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온라인상으로 비난하면 목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이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 실제 사례들에서 보면 온라인 예배 시 처음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릴 때와 같이 드렸는데 점차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예배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설교만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예배자라기보다는 시청자, 구경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예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즐기고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교회문화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예배의 고착화는 온라인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라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으로 주말을 여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주말을 이용한 여행자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도피처, 혹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처할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상황이 나아지면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려 한다.

이 외에도 여러 현상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정도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현재 교회 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예배의 한 방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대가 흐르면 흐름수록 더욱 더 중요성과 필요성은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 소그룹의 실제: Zoom 사용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offline)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도 여전히 공예배 현장을 온전히 복원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소그룹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소그룹을 실제로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Zoom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 소그룹 시작 전: Check List>

먼저,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

는 사항이 있다.

1. 소그룹 구성원이 온라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가?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소그룹 구성원이 있다면, 함께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신호가 양호한 환경이어야 한다. 만약 Wi-fi 신호가 약하거나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느린 환경이라면 제대로 소그룹을 진행할 수 없다. 가급적 Wi-fi 사용이 용이한 곳에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PC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다 원활한 소그룹 진행을 위해 스마트

든 준비를 마쳤는가?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되기 전에 구성원들이 소그룹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주위가 조용한 장소를 물색하게 한다. 특히 카페나 야외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가급적 실내 조용한 곳에서 접속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중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아이의 울음소리, 전화, 문자메시지, 벨소리, 반려동물의 난입 등)를 가급적 원천 차단하게 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제된 공간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릴 필요가 있다.

<온라인 소그룹 시작: Zoom에서 회의 개설>

모든 구성원들이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공기중 코로나19 전파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표 1

전염 요소	교회 활동 내 전염 위험	위험 감소를 위한 제안
코로나19 환자의 전염성	무증상 코로나바이러스 보유자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더 전염성이 큼	마스크 착용
호흡기 비말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길고 빠른 호흡을 증가시키는 찬양, 웃음, 말하기 (때로는 크게), 기침 및 신체 활동	노래, 대화 또는 불필요한 신체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근접 거리 (6피트 이하)	피석은 일반적으로 6피트보다 훨씬 가깝고 사람들은 종종 서로 마주함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것, 대면 활동 금지; 한 방향을 향해 앉지 않기; 마스크 착용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공간	천장이 낮고 외부 환기가 안 되는 소규모 회의실에서 자주 회의	천장이 높은 넓은 방을 사용할 것, 창문과 문을 열어 두고 방을 자주 환기시킬 것; 되도록 야외에서 만남; 마스크 착용
접촉 시간	일반적으로 30 분 이상 지속되는 회의가 잦음 (긴밀한 접촉). 더 긴 시간 = 더 큰 위험 동반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최소화할 것; 이동식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출입
모임 증가	세대 간 접촉이 빈번하면 무증상 청소년으로부터 노인으로 전염이 퍼질 수 있음	음 연령별 모임으로 분리. 같은 사람들과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 위험요소가 감소함.

온라인예배 역기능 현상은 결국 신앙저하로 이어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 잃어버리고 고착화 현상까지

폰보다 PC를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

2.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 참여 방법을 이해하는가?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앱(Zoom, Skype, Teams)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도입을 위해 사용할 프로그램(앱)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온라인 소그룹 예행연습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온라인 소그룹이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온전히 진행되려면, 소그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이는 것이 가능한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온라인 소그룹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구성원별로 사전 교육을 한 후에 반드시 예행연습을 하여, 실제로 온라인 소그룹을 진행할 때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온라인 소그룹을 위해 모

다. 소그룹 구성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에 Zoom이 깔려있다면, 링크를 눌러 손쉽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3. 소그룹 리더: Zoom 회의 보안 Zoom은 보안에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에서 불청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새 회의' 버튼 아래 화상표를 눌러 개인 회의번호를 누르면 'PMI 설정' 메뉴가 보인다. 여기에서 회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소그룹 구성원들은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소그룹 진행: Tips>

이제 실제로 Zoom을 사용해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한다. 소그룹 리더가 중심이 되어 소그룹을 이어나갈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통성기도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소리가 겹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만약 통성기도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면 각자가 자신의 기도소리를 작게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볼륨을 낮추게 하는 것도 좋다. 구성원들이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에 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통성기도의 은혜가 배가된다.

2. 찬양 데이터 송수신 속도에 따라 각각의 목소리에 시간차가 생긴다. 따라서 동시에 같이 찬양을 시작하면 돌림노래처럼 소리가 들려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에는 가급적 소그룹 구성원들이 이어폰 한 쪽을 빼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볼륨을 낮춰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덜 듣게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4. 화면공유(영상자료, 악보 등)와 소리공유(영상소리, 배경음악 등) Zoom은 화상회의 및 강의에 특화되어 있어 PC의 화면을 아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리더가 화면 하단 메뉴에서 '화면공유'를 클릭하면 현재 리더의 PC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하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Welcome"의 의미를 담은 화면을 띄워둘 수도 있다. PPT나 이미지로 환영하는 문구를 담은 화면을 띄워 놓고 잔잔한 배경음악을 재생하고 있으면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결 더 편하게 열고,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이 가능한 소그룹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화면을 공유할 때 왼쪽 하단의 '컴퓨터 소리공유'를 클릭한 뒤 화면을 공유하면 화면뿐만 아니라 PC에서 나는 모든 소리(예: Youtube 영상으로 들어놓은 반주음악 등)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 PC에서 나는 소리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화면공유' 상단의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컴퓨터 소리만'을 선택하면 된다.

5. 온라인 에티켓 소그룹 구성원들이 온라인 소그룹 환경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에티켓을 지키게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신호가 약해 잠시 끊어졌을 경우에 곧바로 모임에 다시 참석하도록 애쓰게 한다. 또, 가급적 소그룹 중에 화상실을 사용하는 등 급한 불일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게 한다.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소그룹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에티켓을 정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사전에 동의하고 약속한 상태로 소그룹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Zoom이 아니라라도 각 교회와 소그룹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갈 때 사역의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그룹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새로이 구축된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풍성한 소그룹 나눔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역을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 새로운 교회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계획을 정했다. 이 단계별 계획에는 지역의 감염수준에 따라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며 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유형성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선교적 부름을 실천하는 것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것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이 계획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각 주의 정부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제한으로 인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비슷한 수준일 때만 동일한 단계의 활동을 구현해야 한다. 이 표(표2)에는 일반적인 교회 활동들만 포함되어 있다. 이 외 활동을 안전하게 구현할 때는 이 방법을 결정할 때는 표1의 요소와 재개된 활동에 따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찬양인도자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찬양인도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들의 마이크를 음소거 하는 것도 좋다.

3. 소그룹 내 조별모임 Zoom에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다. 모든 구성원들을 리더가 원하는 숫자만큼 연 '소회의실'에 나눠 넣고 한시적으로 조별모임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Zoom 홈페이지(www.zoom.us)에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설정' 아래 '회의 중(고급)' 옵션에서 '소회의실'을 활성화 해주면 된다. 이후 다시 Zoom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단 메뉴에 '소회의실'이 추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회의실'을 클릭하고 열기 하는 조별모임의 숫자를 기입하고 나면 각 '소회의실'에 들어가 사람들을 지정하거나 무작위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을 마치고 '소회의실'을 열면 각 구성원에게 '소회의실'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별로 개별 공간에서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 리더가 원하는 시간에 '소회의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60초 타이머가 시작되고, 타이머가 종료되면 강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번에 다시 모이게 된다.

2. 소그룹 리더: Zoom 회의 개설 소그룹 리더는 Zoom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로그인한다. 그리고 '새 회의'를 눌러 모임 시작한다. 하단 메뉴에서 '초대'를 누른 뒤, 추가로 뜬 메뉴에서 'URL 복사'를 눌러 초대링크의 주소를 복사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소그룹 구성원에게 보낸

신임총회장 김윤석 목사,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99회 정기총회 일일총회 개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가 최근 '성결교회 선교 114 연차 대회 및 제99회 정기총회'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땅끝까지 성결의 복음을'(행1:8)이라는 주제의 총회에서 제99회 총회장에 김윤석 좋은이웃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예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사흘로 예정된 총회를 하루 일정으로 변경했다. 총회는 개회예배, 공로패 증정, 연차대회, 총회 신임 선출 및 취임식 등으로 진행됐다. 목사안수 대상자들을 제외한 각 부서의 정원서와 건의안, 98회 경과보고 등 상정한 모든 안건에 대해선 총회 실행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신임 총회장인 김 목사는 취

임사에서 "사중 복음을 통한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도를 통한 교단 부흥, 목회자 후생복지와 은급재단 발전을 위한 예성 협동조합 설립, 총회 회관 건립 추진, 교단 내 젊고 유능한 인재 발굴 등 교단의 미래 목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과 총무 임원 선거는 점진 끝에 진행됐다. 부총회장에 이상문 두란노교회 목사, 정기소 수원중앙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교단 총무엔 이강준 목사가 연임됐다. 서기는 김만수 고천교회 목사, 부서기는 노윤식 주님앞에제일교회 목사, 회의록 서기는 이종만 생명수샘교회 목사, 회계는 천민우 합덕제일교회 장로, 부회계는 황재돈 신림제일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내달 19일 '전국교회 특별기도의 날' 선포

예장합동, 김중준 총회장 5가지 기도주제 담은 담화문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이 다음 달 19일을 국가와 교회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특별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김중준(사진) 총회장은 2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 물적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다음 달 15-20일을 '전국교회 특별기도 주간'으로, 19일을 '특별기도의 날'로 선

포했다. 그는 "교단 산하 1만 2000여 교회가 한 주간 새벽기도회를 열고 특별기도의 날엔 모든 교우가 일손을 멈추고 교회나 기도원에서 회복을 향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담화문에선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신앙 회복, 다음세대 회복, 경제 회복 등 5가지 기도 주제도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모이기에 힘쓸 때 강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는 성경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권면했다.

"성경보다 우상 앞세워 영성 혼탁"

예장백석 노회임원 위크숍, 강사 장종현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25-26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노회임원 위크숍'을 개최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은 800여명의 노회 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2000석 규모의 공간을 빌렸으며, 입구에 대인소독기와 자동발열체온계를 설치했다. 투명안면 마스크를 일괄 배포해 대화 중 비말 확산을 방지했다.

주강사로 나선 장종현 총회장은 "예장백석의 신학 정체성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그 안에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있다"면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신학자들이 지식이라는 우상을 성경보다 앞세운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총회장은 "우리의 신본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성경 지식 전수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라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

교단 실무자들은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인 교단 분열과 이단 침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소개했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예장백석에 110개 노회 6440개 교회와 1만855명의 교역자가 소속돼 있다"면서 "분쟁을 일으킨 교단 탈퇴자의 재가입은 5년이 지나야 하며 탈퇴 노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해 분열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타 교단 목회자가 예장백석에 가입하려면 졸업증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정규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교회 주역으로 키우려면...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교육' 살롬나비 학술대회 열려

한국교회 차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선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 패러다임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세대가 교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생태계를 '친(親) 차세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살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은 "차세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신앙으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부모,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해 일관성 있는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이런 모습은 교회에도 나타난다"며 "성인세대 목회와 성장세대 목회가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성

장세대 역시 성인세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며 "다음세대 교육을 신학생인 비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교회학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목사는 "현재 3F 중심의 교회 모임을 3M 중심의 모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며 "과자(Food) 재미(Fun) 친구(Friends)가 중심이 된 피상적인 모임이나 예배가 아니라 동기 부여(Motivation) 의미(Meaning) 임무(Mission)가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임이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에 넘치는 이단 콘텐츠

전능신교 등 정체성 세탁 위해 활용

A목사는 최근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라는 곳에서 올린 영화와 말씀이 화면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3년 전 올린 것부터 지난달 올린 것까지 시기는 다양했다. A목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이곳은 동방번개 또는 전능신교로 알려진 이단이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속 이단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전문가들은 이 단들이 대다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 거점을 이미 확보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단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많은 이단이 유튜브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며 "본인들의 정체성 세탁을 위해 유튜브 등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임웅기 광주상담소장은 "친밀감 형성 후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의 수법을 볼 때 유튜브는 대단히 좋은 도구"라며 "거기 올리는 콘

텐츠들은 자기네 홍보 영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전능신교가 올린 기독교 영화를 클릭하면 아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에 들립 받을 수 있을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카카오톡 계정을 볼 수 있다. 클릭하면 바로 상담 채널로 넘어간다.

전문가들은 이단의 이 같은 콘텐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탁 소장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해도 올린 이의 정확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다면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물다라라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단 콘텐츠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기독교 방송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CGNTV 합대경 본부장은 "주요 교단과 함께 미디어 라이선스를 제작 중"이라며 "여러 교단과 개교회의 콘텐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이단적 요소는 애초 차단해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성, 한기총 탈퇴 결의

'전광훈 대표회장 막말 논란'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27일 제114년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총대들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한기총 탈퇴 건을 통과시켰다.

한기채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이제 한기총에서 탈퇴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함께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연합기관과 함께 한국교회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 총회 임원회는 한기총이 전광훈 대표회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교단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기총 탈퇴 건을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기성은 2011년 한기총의 금권선거 논란 이후 행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12년 한기총총상화 대책위원회로 시작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가입했다. 2016년 주요 7개 교단 중심으로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 출범

한 한교총에 합류하면서 한교연을 탈퇴했다.

그러나 한기총에서 탈퇴하지 않고 행정보류 상태를 유지해 오해를 많이 받았다. 교단 관계자는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우리 교단명이 기재돼 교단 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한기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결교회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교리문답집을 발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총회본부 재건축승인 및 위원회구성' 건은 부결됐다. 재건축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본부재건추진구위원회인 한 총회장은 "하루 총회"로 진행되다 보니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건축에 반대 한 분들이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한 뒤 지역별로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대체복무제, 이단 포교수단 될 우려"

'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자들 10월부터 교정시설서 합숙근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이들이 교도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내 합숙시설이 마련되는 오는 10월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이들이 암암리에 이단 포교에 힘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기독교단체 세진회 이일형 사무국장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정시설은 선교 사역자로서 대외의 공력이 쉽다"면서 "재소자 중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대체복무 중인 이단 신도들이 이들에게 다가갈 여지를 열어주거나 면회도 가면서 마음을 얻게 된다면 엄청난 이단 선교지가 될 것이다. 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교도소마다 이단 포교가 활발하다"면서 "교도소는 폐쇄적인 분위기라 작지 않기에 버겁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한 포교가 살갑게

진행되기에 미혹의 영향력 또한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처가 국가운영 수용시설이고 시설 내부에선 공식 활동 외엔 종교활동이 금지된 만큼 직접적인 포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오랜 기간 재소자들과 마주하며 친분을 쌓으면 자연스레 포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지역 내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재소자들과의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위주로 진행되는 교정시설 내 종교활동에 대해 여호와의증인 측도 동일한 역할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하지만 가톨릭과 비교해볼 때, 교정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교회가 교정선교 사역을 다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마땅한 대안과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뇌종양

외과 수술로 종양 제거 치료

O.J.심슨 변론으로 유명한 흑인 변호사 자니 코크란(johnny Cochran)이 뇌의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후 의학계에서는 코크란이 변호사라는 직업상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연구결과와는 휴대전화와 뇌종양의 사이에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베버리힐즈에 사는 50대 후반의 신경외과 의사인 R씨는 어느 날 아침 심한 두통을 느꼈다. 평소 편두통을 앓던 그녀는 두통약을 먹고 직장에 나갔다. 하지만 두통은 좋아지지 않았고 속까지 메스꺼웠다. 병원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녀는 최근 잦은 두통에 시달렸는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좋아지지만 몇 시간 후에 통증이 재발했다. 두통은 오른쪽 귀 아래쪽에서 심해 처음에는 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다. 그녀는 뇌 단층촬영을 한 결과 뇌 피질부위에 3센티미터 크기의 종양이 나타났다. 확진을 위해서 뇌 자기공명촬영(MRI)을 하고 그 결과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른 종양의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종양은 다른 암에서 전이된 것이 아니라 뇌 자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20년 이상 신경외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뇌종양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녀는 짧은 시간에 암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암 환자로 처지가 바뀌었다. 그녀는 며칠 후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다형성교아종으로 판명이 났다. 그 후 그녀는 약물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뇌종양은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데 동양인은 백인보다 발병빈도가 조금 적다. 가장 흔한 뇌종양은 신경교아종으로 전체 뇌종양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중 악성교아종은 예후가 아주 좋지 않아 5년 생존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원발성 뇌종양(뇌 자체에서 발생한 종양)의 치료는 외과적 수술로 제거할 수 있을 때 종양 전체를 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은 대부분의 양성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악성종양도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감마나이프라고 널리 알려진 뇌종양 치료방법은 다량의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정상 뇌세포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문의:213-383-9388

'2020 선교통일한국 콘퍼런스' 개막

"선교적 통일 이룬다면 전세계 평화모델 될 것"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통일 코리아의 시대가 온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목사) 공동대표인 황성주 이음 생명과학연구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통해 세계질서가 급변하면서 북한의 전면적 개방과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속초 컨벤션호텔 설악에서 열리는 '2020 선교통일한국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새로운 일상, 뉴 노멀(New Normal)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탈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이고 '강한 국가-착한 정부-강한 시민역량'이 입증된 한국 모델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특히 "선교통일이야말로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는 열쇠"라며 "이는 '왜 통일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조국은 전 세계에 화해의 모델로, 평화의 전도사로, 사회경제문화 대국으로, 선교의 고속도로로 각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위축된 시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선통협 주관으로 마련됐다. 황 원장에 이어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 강단에 선 정진호 한동대 교수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를 '게임 체인저'라 불렀다. 황 원장이 언

급한 뉴 노멀과 비슷한 개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그는 "바이러스와 박테어를 통한 냉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는 인공지능(AI)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특히 미션 측면에서 그레이트 코리아로서의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다.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의 이야기"라며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흩어지기 싫어하는 한민족을 강제적으로 흩뜨린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곳곳에 우리 민족이 있고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민족으로 부르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통일은 세계사적 사건이자 영적 사건일 것"이라며 "단순한 민족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통협은 통일선교공로상 시상도 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북한교회연구원장 유관지 목사에게 돌아갔다. 유 목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통일선교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싶었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북한에 교회가 있던 곳을 찾아 간단한 설명을 적은 팻들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교회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고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4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한인 세계선교의 큰 이슈(Issue)인 사역 이양

Covid19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선교현장도 여파가 크다. 여기 저기에서 사역지를 떠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단 코로나바이러스란 원인 외에도 은퇴, 추방당함, 사건사고, 사역전환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현장을 나서는 선교사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사역이양이다. 만일 이것이 잘못 되면 애써 일으킨 선교기초가 송두리 채 날아갈 수 있다. 이는 400m 계주에서 선수들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했어도 배턴터치를 잘못하면 낭패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사역을 잘 이양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과업을 이양한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아름다운 리더십 이양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계승 발전되며 주인공으로 쓰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흠모할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한 가운데 은퇴를 앞둔 목회자의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 바로 후임자 선정문제이다. 오늘날 많은 한인교회가 사역이양 문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선교현장으로 하나 둘

씩 점화되고 있다. 한인 세계 선교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유인즉,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자신감 속에서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자유 자유화를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때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초창기 나왔던 선교사들이 60, 70대를 넘어섰고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간 한인 선교사들은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고군부투(孤軍奮鬪)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이러한 1세대 선교사들이 일궈놓은 기초 위에서 어떻게 2세대

선교가 맥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2020년, 지금에 한인 세계선교는 사역적 이양 건이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2. 선임자의 마음 자세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다니/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는 고려 말의 충신인 길재(吉再)가 쓴 시조이다. 그는 고려가 망한 뒤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오랜만에 폐허가 된 도읍지 개경의 궁궐터를 돌아 보았다. 안타깝게도 자연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바뀌고 벗어난 자취를 감춰 만년 길이 없었다. 이에 그는 옛 시절을 생각하며 “인간의 부귀영화란 일장춘몽 아니던가?”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본 시조는 우

“다” 라는 말이 있다. 만일 지도자를 잘못 선정하면 그간의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후임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민27:18). 모세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시 하였다. 사역을 계승함에 있어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둘째로 자질을 갖춘 자이다.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영성, 지성, 덕성, 야성 등 두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보기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켰다. 대표적 인물 사레가 가나안 정탐을 한 후 그의 보고에서 나타났다. 셋째로 DNA가 같은 자이다.

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선임자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좋다. 청빙자는 선임자와 모든 것이 다른 외인이기에 사역의 연속성을 잇기 어렵다.

4. 사역 이양에서 예견되는 문제

낮선 타국에서 청춘을 바친 선교사는 아무래도 그 사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많은 재정이 투입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저들은 꾸짖힐 수도 있다. “나이 먹은 것 외에 체력이 있고 마음은 이팔청춘 때나 다를 바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은퇴를 앞둔 선교사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설사 탈 탈 털고 귀국한다 해도 설 자 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고 사역지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며 남아 있는 것도 부담이다. 문제는 세월은 냉정하며 그 누구도 비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사역 말미보다 초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만일 선교사가 은퇴를 앞두고 문건을 만든다면 이해 받을 수 있다. 선교사는 자나 깨나 많은 눈들이 앞,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인식해야 한다.

맺음 말

천하사 득인이임지 사과반의(天下事 得人而任之 思過半矣): 천하의 일은 책임자를 얻어서 맡기면 절반 이상 이뤄진 것이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시대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다. 좋은 끝맺음은 사역이양을 잘 하는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지난 사역을 기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더욱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목회든 선교이든 1세대 개척자는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헌신의 대가로 사역적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름 있는 원로들 가운데 끝맺음을 잘 못함으로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한꺼번에 날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애석한 일이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오를 자는 빨리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개척자들도 같은 이치이다. 소위 필가에는 사람이수록 서산에 지는 태양처럼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사람의 됴됨이는 일군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영웅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말했다.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jrsong007@hanmail.net

달리기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턴터치이다. 아무리 성공적 사역을 했을지라도 이양이 잘못되면 실패이다. 위임자는 서산에 지는 태양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 1. 한인 세계선교의 당연한 과제
-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헌

리 인간에게 암시한 바가 크다. 이는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끝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는 부임 때부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출구전략 가운데 사역에 임해야 한다. 비록 선교사는 그 자리를 떠난다 해도 선교는 영속성 있게 계승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시작 때부터 배턴 이을 자를 모색하며 양성하고 준비시켜야 차질이 없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3. 적합한 후임자의 선정 요건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동역자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이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수박에 없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회귀를 요구했다. 만일 군중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비전과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넷째로 훈련된 자이다. 모세는 거의 40년간 여호수아를 조력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였다(출24:12-18, 33:7-11). 그는 멘토로서 여호수아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며 키웠다(출17:14, 32:15-35). 이처럼 다음세대 지도자는 밖

쳐갈 수 없다는 데 있다.

나이든 선교사가 계속 자리를 지키며 버틸 때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에 누군가에 의해 밀려나게 된다. 그간의 헌신과 수고와 헌신 짝처럼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시니어 선교사는 아직 힘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방법론으로 단체마다 정관을 제정하고 그것에 기초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내규에 의해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하면 뒤떨어지지 않는다. 사역도 아름답게 이어지게 된다. 즉, 인치가 아니라 제도적인 범치를 세우라는 말이다.

드라마 서신서 (7)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문, 골, 엡, 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출옥 후에 기록한 목회서신(딤펴전, 딤펴, 딤펴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서신의 배경

‘목회서신’은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 목회의 전반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제 1차 로마감옥에서 풀려난 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의 순서로 읽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새로운 복음의 리더십들을 양육하는 것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교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부터 바울과 동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감옥에서도,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도, 로마의 감옥에서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에베

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딤펴전1:1-2). 내가 그대를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쟁론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훈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소(딤펴전1:3-11). 죄인 중의 죄수인 나를 구원하신 복음, 그 복음

바라오(딤펴전5장). 목회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못하기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오(딤펴전6:3-10). 그렇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라네(딤펴전6:17-19).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오(딤펴전6:11-16).

디도서의 내용

디도서는 바울이 니고볼리(아가야 지방)에 머물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디모데전서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며 바울에게는 ‘믿음을 따

담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로 목양하기를 바라오(딤펴2장). 그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됴를 잘 가르치길 바라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되기 때문이오(딤펴3:1-11).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의 후임으로 보낼 것인데, 그러면 그대는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속히 와주기를 바라오. 그대와 그대의 무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딤펴3:12-15).

디모데후서의 내용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편지입니다. 구리 장석 알렉산더가 주동한 폭동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황제의 재위기간으로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시기였으며, 감금된 감옥은 너무나도 열악하였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었고, 아마도 암실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바울의 옆에서 변호

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딤펴후2:1-13)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하나님께 그대를 드리시오. 정욕을 피하여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된 일군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나오(딤펴후2:14-26).

다가 올 말세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오. 그 때 경건을 지키는 자는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오.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 했던 것처럼 말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배우고 확실한 성경 말씀 안에 거하길 바라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딤펴후3장).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길 바라오(딤펴후4:1-5).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오(딤펴후4:6-8).

사랑하는 디모데여, 속히 나에게와 주기를 바라오(딤펴후4:9).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오(딤펴후1:15; 딤펴후4:9-10, 16). 겨울이 오기 전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가지고 와주기를 바라며, 책은 가죽줄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길 바라오. 은혜가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딤펴후9-22).

오늘 목회서신서를 끝으로 ‘드라마 서신서(바울서신 13권)’ 연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일하십니까! 공동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지난 ‘드라마 신약 1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약언서를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dsukim@gmail.com

바울 출옥 후 쓴 목회서신 딤펴전, 딤펴, 딤펴후 복음의 리더십 양성 목적,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 조언

을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 바라오(딤펴전1:12-20).

목회자는 기도로 사역을 해야 하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one mediator)이심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an intercessor)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오(딤펴전2:1-7). 동역자들이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은 엄격하게 정하길 바라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초이기 때문이오(딤펴전3장). 특별히 그대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군이 되어(딤펴전4장)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거룩과 사랑으로 잘 목양하

라 된 나의 참 아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 때도 바울과 함께 참석했으며,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전달하면서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오(딤펴1:1-4). 내가 그대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것이오. 그대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오(딤펴후1:3-18). 그대는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규칙대로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를 해주던 사람들이 거의 다 바울을 떠나고 누가만 그와 함께 있습니다.

나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네(딤펴후4:6-8).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라오(딤펴후1:1-2). 내가 그대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것이오. 그대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대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오(딤펴후1:3-18). 그대는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규칙대로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캐플린 임상목의 (40)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캐플린)

분열의 현장과 화합의 현장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두려움은 분노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고 그로인해 자신이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중심리까지 더해져 중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모든 아시아 유색인종들에게 인종차별적 언행과 폭행들이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노약자와 여성들이 타겟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흑인들이 범법자로 오해받아 민간인과 백인 경찰들에 의해 살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미국 도처에서 발생했고, 응어리졌던 흑인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특히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방화와 약탈, 폭도화의 조짐까지 보이며 번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기저질환 환자들을 별도의 중환자실에서 돌봐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80대의 백인 환자가 40여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하면서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준 흑인 간호사에게 선물과 카드를 전하며 지역신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인터뷰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그 퇴원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해주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자신은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부끄러운 기독교인이었다는 고백을 들었다. 평생을 지니고 살았던 생각과 편견은 한 중환자실 흑인 간호사의 정성과 사랑으로 무너져 내렸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용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데모가 전 도시적으로 확산되고 저녁 통근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요즘 병원응급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루고 있다. 최루탄과 화염병, 진압과 저항 속에서 부상당한 시위자 및 경찰들이 실려 오고 있다. 엇그제 응급실로 온 젊은 흑인 청소년은 신분증도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조차 안 되었지만 자정이 넘어 몇 시간 동안 수술 끝에 상처도 잘 봉합되고 저녁근무 전담 간호사였던 어머니뻘의 백인 간호사의 정성어린 돌봄이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듣고 도착한 부모들은 병원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많은 사망자들을 통해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충격적이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 이기심과 방종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경종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풀아 있던 사회와 가치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었다.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던 그리스도인들조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분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화합과 감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류의 소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던 고마운 시간이었다.

tdspark@gmail.com

과테말라

이곳 과테말라는 3월 초부터 Coronavirus19로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 출신 Giammattei 대통령이 지혜스럽게 3월 15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최대한 국민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문을 닫히게 되었고, 학교수업중지, Public Transportation 운행중지, 국민들은 Home Stay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생활을 하는 수입의 Chain 끊기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의료시설은 턱 없이 모자라고, Test Kit 부족, Community 전염 등으로 국민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아래서 생명수학교는 정식 수업은 Suspend되었고 선생님들이 교육 Platform을 사용 Internet을 통한 학업을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협력

하에 익숙지 않지만 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수교회도 예배로는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Social Distance를 유지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맘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oronavirus 19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의 시간이 되지 않겠는 기대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중 하나님의 사랑안에 부은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롬 5장1-5절).

과테말라 선교지 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이 더욱 현장을 사랑과 인내와 소망 속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잘 협력하며 장래에 필요한 지도자를 잘 배출하는 학



교가 되기를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명수학교 선생님들을 지키시기를 -교회사역에 하나님의 은

혜의 생명수가 성도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감사드립니다... 과테말라에서 장흥호, 장미혜, 최상현 선교사 올림

선교 편지

스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2020년 5월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페인 은 지난 3월 14일부터 레벨 4의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고, 식료품 구입과 강아지 산책을 위해 거리를 걷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모나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아직 Covid19 확진자 26만9천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만6천여명으로 치사율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병원 대란과 경제적 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이제 공포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는 두려움으로 모두의 대문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스페인의 소외된 곳에서선 절규하지만 정

부에도 이웃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럽은 그야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비참함과 경제적인 침체보다 영적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비참함이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아들을 내려주시는 간절함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선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

4월로 접어들면서 섬기고 있던 문화센터에 나오던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그들의 상황들에 대해 나누었고 아이들은 지난 선교사대회 때 메릴랜드의 한 교회로부터 받았던 용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돈이 쓰드머니가 되어 음식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함께 사역하는 활옥심 선교사님과 Andres(안드레스), Ruth(루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7가정에 2주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아이들 기저귀를 비롯한 기본 생

활용품을 구입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나눌 때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17가정의 무슬림 난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 생활용품과 함께 아랍어-스페인어 성경 패키지와 지인들이 보내준 마스크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가정의 가족 수에 비하면 풍족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모두들 받는 모습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에 다음 주 중에 연락이 오는 이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질 소원합니다.

교회 형제 오스칼(Oscar)의 62일간 중환자실 생활

어제 새벽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말라가 라뿌에르따(La Puerta)교회의 형제인 닥터 오스칼(Oscar)이 진료중 COVID19에 감염되어 62일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버리다가 회복되어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는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년 전에

는 중풍으로 2달간 입원했던 기저질환이 있었기에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중 신장 기능이 정지되어

투석기를 달았고, 폐가 손상되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미국의 여러 교회, 한국과 스페인과 남미의 교회들이 기도했고 의료진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주 조금씩 그의 몸이 호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전에는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 오후에는 1시간 정도 집 주변을 산책하며 지냅니다. 저녁 9시30분엔 스페인팀 중보기도를 매일 이어가고 있어 다시금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사현, 이현진 선교사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영어로 보는 성경 (67)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3 Jude 1:20-23

20) But you, dear friends, build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 in the Holy Spirit, 21)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22) Be merciful to those who doubt; 23) snatch others from the fire and save them; to others show mercy, mixed with fear--hating even the clothing stained by corrupted flesh.

(NIV 1984)

WORD & IDIOM

* build oneself up: 자신을 증강(강화)하다 * be merciful to ~: ~에게 자비롭다 * snatch from ~: ~에서 잡아채다 * stained: 얼룩진

GRAMMAR

20) But you, dear friends, build yourselves up

그러나 너희는, 사랑하는 친구들 너희 자신을 증강하라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 in the Holy Spirit,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는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증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 문장의 시작을 (But)으로 한 것은 20절 이전의 말씀 곧 이단자들에 대한 비난을 마치고 난 다음, 이제 수신자에게 권면을 주기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you, dear friends)는 호칭이며 (build ~) 이하는 명령형 문장이다.

21)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for 이하를) 기다리면서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 (to bring you to eternal life)는 (the mercy),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구문이다. Ex) He is not a man to tell a lie. =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22) Be merciful to those who doubt;

그들에게 자비로워라 (those) 의심하다; => 의심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 (who doubt)는 관계대명사구로 앞의 바로 앞의 명사 (those)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 경우 (those)는 앞의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되는 동시에 (doubt)의 주어가 되며, (who)는 (those)가 주어임을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23) snatch others from the fire and save them;

다른 사람들은 잡아채라 (그) 불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to others show mercy, mixed with fear--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라 두려움으로 혼합된

hating even the clothing stained by corrupted flesh.

(그리고 ~를) 미워하라 얼룩진 옷조차도 타락한 육체에 의하여 => 그리고(;) ,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잡아채서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비를 보여라, 그리고 타락한 육체로 인하여 얼룩진(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 (mixed with fear)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두려움으로 혼합된 채로> 정도의 해석이 되겠지만 그 의미를 살려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등의 의역이 자연스럽다. * (hating)으로 이어지는 문장 또한 분사구문으로 (and hate even the clothing stained by corrupted flesh)와 같은 의미이며 앞의 명령문 (snatch ~)과 연결된다.

STUDY & THOUGH

■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이비·이단이 많이 발흥할 것을 직시하고 그들의 특징을 분명히 인식함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들의 어떠한 미혹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키며 복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라 하더라도 편견을 가지고 방관만 하지 말고 죄악의 실상은 혐오되 두려움을 가지고 공회와 사랑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 Help those who are trapped in false truth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왕하4:8)

본문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보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함으로 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수넵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북쪽 위 갈멜산에서 살면서 수시로 사마리아 끝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길갈까지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수넵에 묵을

때가 많았는데 수넵에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성읍을 지날 때마다 집에 간권함으로 초청해 정성을 다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귀한 여인은 "부유하고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간권하다는 "꼭 붙잡다"라는 뜻으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정성을 다해 대접받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는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니(왕하4:9)

수넵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붙잡혀서 항상 식사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 분별력이 뛰어 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과 상의해 엘리사가 성읍에 내려올 때 식사만 하고 가게 하지 말고 쉬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묵

상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수넵여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평한 지붕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 엘리사가 항상 쉬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수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은 담 위에 짓고(왕하4:9-10)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수넵여인의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잘해 주기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마음은 있어도 신경쓰기조차 바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정성을 다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 시대에는 왕에게 아부하는 거짓선지자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는 수넵여인과 그의 남편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목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왕하4:11-13)

엘리사가 수넵여인의 정성의 대접을 받고 그 날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수넵여인의 섬김이 너무 감사해 사환 게하시를 불러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수넵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해 엘리사를 섬기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 13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다"는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미 행복

하게 잘 살고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순수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바쁜 상황에도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수넵여인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섬길 때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

금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왕하4:14-17)

수넵여인은 아무 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하면서 깊이 생각하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즉시 그 여인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의 정성

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부르고 또 부르셔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크고 놀라운 일로 기적 같은 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위에 두고(왕하4:18-27)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버림으로써 큰 고통을 갖게 된 수넵여인이 조금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본문 18절 "그 아이가 저이기 자랐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살에서 5살 사이의 재물을 피며 말하며 걷고 뛰 어노는 아주 귀여운 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계시는 옥수수 밭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가 엄마 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때 이 죽은 아이를 수넵여인은 즉시 엘리사의 침상에 누웠습니.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4번도 맨해튼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대체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제쯤 끝날까요?”

허프포스트, 코로나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보도

뉴욕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불안장애전문 심리학자 아멜리아 엘다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거의 매일 환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대체 이걸 언제쯤 끝날까요?” 엘다오는 ‘허프포스트’에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엄청난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확실한 것,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걸 찾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단지 불안을 더 가중시키게 될 뿐이예요.”

또 다른 심리학자 앤디 슈웬은 살면서 별다른 트라우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한 환자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정신적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더라는 경험담을 전했다. 다른 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환자들은 이번 위기에 “굉장히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이제 사람들도 내가 매일 어떤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지 알 수 있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1. 사람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싱장애(PTSD)를 겪을 수도 있다

전쟁에 참가한 기억, 성범죄 피해, 자연재해, 사고, 테러 공격 외에 감염병 사태도 외상후스트레싱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엘다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정신적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남긴다고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내면에 일종의 비통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사람들과 만나는 생활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럴만 하죠. 앞으로도 변화는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트라우마를 만드는 주된 이유입니다. 언제쯤 학교에 다시 가게 될까? 언제쯤 외국여행을 다시 다닐 수 있을까? 다들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품고 있을 테니까요. 불확실성이 불안을 부르고, 스트레스를 높이며, 이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심리학자 엘리사 바버시는 자신의 환자들 중 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만 있으려 하는 일반적인 PTSD 증상을 보인 이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심리 전문가들은 이 한 가지만큼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격리 생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생활이 이어지면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해가고 있겠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일 것이라는 것을요.” 슈웬의 말이다(The Long-Term Effects Social Distancing May Have On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and agoraphobia are among the mental health issues therapists are concerned about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는 지금 같은 때에는 기존에 광장공포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시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응원과 지지를 얻을 기회 역시 줄어들기도 한다. 예일대학교 공



PTSD, 광장공포증, 우울증, 자살...취약계층에 더 심해 아이들도 영향...단, 장기계획 세우고 온라인 교제 활용

2. 사람에 따라 밖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을 겪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더라도 혹시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 감염 위험에 처하

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경우다. 사람에 따라서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광장공포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증상은 집과 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실내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넓은 광장에서조차 두려움의 감정을 받는다.

집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이어지

었다. “집에 있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바버시의 말이다.

3. 사회적 교류가 끊어지면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 위험을 크게 줄여주지만 동

중보건학과 행동과학 전공교수 사라 로우의 말이다.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여러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우울증도 그 중 하나”라고 그는 설명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면할 때처럼 이웃, 회사 동료, 가게점원 같은 얼굴 모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렵죠.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요.

계속 모니터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피로감도 있죠.”

외로운 감정은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나쁜 영향을 준다.

4.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자살행동 연구소의 로리 오키너 교수는 “몇 달씩, 몇 년씩 코로나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감염병 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취약한 이들 사이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고립감, 경제적 불안이 한 데 얹어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요소들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키너 교수의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현재 영국 전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추적 연구를 하고 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자살 충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설문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떤 마음의 변

방치되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슈웬의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9.11테러 직후 성격이 형성되는 나이의 어린 아이들이 겪었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행동문제와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필수 인력으로 바쁘게 일하는 의료진이나 식료품 관련 일을 하는 부모들 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나?

우선 코로나사태가 종식된다고 해도 정신적인 영향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오키너는 “각국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안전망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엘다오는 앞으로의 일이 심각하게 걱정돼 불안하다면, 두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아주 가까운 미래다. 이번 주중, 이번 주말까지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주 먼 미래다. 3년 뒤 커리어 목표는 무엇인지, 혹은 미래에 결혼 등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등이다. 유쾌한 방법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나마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민과 걱정, 일상은 계속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동행동전문가 드니스 대니얼스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많이 안아주라”고 조언한다.

화와 위기대응행동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5. 어린이들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학대당하거나

시론

(3면에서 계속)

오랜 시간동안 집에 머무르다 보니 많은 부닥침들 가운데 그동안 안 있고 살았던 부모, 자녀들과 대화하는 계기가 되어 비록 빼고 덕거릴 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를 통해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들을 못나가고, 교회도 못 모여서 가정과 교회의 창고가 점점 비어가는 중에 한 길이 막히면 다른 피할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을 굳이 한마디로 한다면 원래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RESET’이 아닐까요?

전후좌우 둘러볼 때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나 가정이나 교회나, ‘성경 안으로’라는 리셋버튼을 누르는 것, 절대로 도피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적극적인 방향성이자 행동이 ‘리셋’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사태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나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시대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서독으로의 행렬에서 홀로 동독으로 떠나는 카스너 목사처럼 말입니다. 이 길이 우리 모두를 당황케 만들며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이끌

것입니다.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가정과 교회를 리셋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축하시는 성서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이때 더 큰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 합시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 정치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